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애나 정
President

35년의 풍부한 경험,
미주 전체 탑 브로커
anna@kstadiumrealty.com
617.780.1675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지난 28일 화요일 오후 다운타운 한 중국계 스시 식당이 위치한 빌딩에서 개최된 주지사 선거자금 모금 행사. 셀프 카메라를 찍고 있는 아시안 정치계 인사 레버렛 왕이 이 행사를 주최했다

주지사 부른 중국계 후원망, 한인사회 정치력 공백 드러내

힐리 주지사, 레버렛 왕 주최 아시안계 기금모금 행사 참석
한인사회, 주지사 선거에서의 존재감, 현재까지는 미세 수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가 28일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열린 아시안계 중심 기금모금 행사에 참석해 재선 지지를 호소했다. 행사는 한인 사회에 잘 알려진 아시안 정치계 인사인 레버렛 왕이 주최했다. 현장에는 린다 챔피언 등 소수 한인이 참석했으나 행사의 중심은 상당수 중국계 아시안 후원자들과 백인 후원자들이었다. 행사장소는 주청사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전체 기사 읽기》
있는 한 중국계 스시 레스토랑이었다. 주지사의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 장소였다. 행사가 시작되자 주최측 위원회 인사들과 주지사의 간단한 대화 및 사진 촬영이 진행됐고, 곧바로 주지사의 재선을 위한 연설이 이어졌다.
힐리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2026년 선거를 단순한 주지사 선거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MAGA 세력에 맞서 매사추세츠의 가치와 이

민자 공동체를 지키는 선거로 규정했다.
그는 “많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식료품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렌트, 주택 구입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지사로서 나의 초점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행정부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을 낮추며,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힐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관세 정책으로 생활비를 끌어올리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역사회에 투입해 이민자 가정에 공포를 주고 있으며, 건강보험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매사추세츠가 이민자 공동체, 유학생, 연구자, 혁신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주라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식 정책은 매사추세츠의 경제와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힐리 주지사는 공화당 후보들을 겨냥해 “매사추세츠 공화당 안의 가장 극단적인 MAGA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트럼프의 관세, ICE 단속, 건강보험 축소, 낙태권 후퇴, 이민자 공동체 공격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은 매사추세츠에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화당 후보가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공격하고 “그들에게는 돈이 있지만, 나에게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9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첫 주택 구매자에 2만5천 달러 무이자 지원

동부 매사추세츠 연소득 20만5천335달러까지
7월 31일까지 매스하우징 모기지 록인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5천 달러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4월 27일부터 더 많은 매사추세츠 주민이 매스하우징(MassHousing)의 첫 주택 구매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다운페이먼트뿐 아니라 클로징 비용, 모기지 보험 선납금, 영구 권리인 하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매스하우징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스하우징 모기지를 록인한 자격 있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된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기존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이자가 붙는 2차 모기지(second mortgage) 형태로 제공됐던 지원금이 0% 무이자로 바뀌었다. 둘째, 상환 시점이 유예된다. 즉, 매달 따로 갚을 필요 없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재융자하거나, 첫 모기지를 모두 갚을 때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전체 기사 읽기》
힐리 주지사는 이번 확대가 주택 구매 초기 비용과 월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주민이 매사추세츠에서 집을 사고 미래를 일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킴 드리스콜 부지사도 주택 구매를 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 가정과 중산층 주민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뒀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비교적 느슨하다. 매사추세츠 안에서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하며, 단 ▶▶6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0년째 맞은 국제선 모금 만찬 성황리에 열려

주 디조글리오 감사 “국제선 활동 필수적” 이라 격려 표창장 증정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2026년 30년째를 맞은 국제결혼 선교회 모금만찬이 첼스포드에 위치한 엘크스 클럽에서 4월 25일 개최됐다. 국제선은 다문화 가정들이 미국 사회에서 겪는 애환을 나누고 2세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든 단체로, 30년을 한결같이 매년 봄 모금만찬을 개최하며 한인 사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만찬을 통해 모은 기금은 세인트 루이스 소재 웰터인 평화의 집 건축과 국제선 2세를 지원에 사용된다. 한인 2세들은 미국 사회에서 자라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국제선 자녀들은 때로 더 많은 정체성 혼란을 겪기에 단체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버트 캠벨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만찬은 다문화 선교회 이설아 목사의 개회 기도, 조이박·최선희씨의 국가제장 김 월시 전국국제선 회장과 허민선 보스톤 지부 회장의 인사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주 감사(State Auditor)를 맡고 있는 다이애나 디조글리오가 게스트 스피커로 참석해 “나는 여러분을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부를 감사하는 사람” 이라고



말해 한바탕 웃음을 선사했다.

디조글리오 감사는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시절을 공유했다. 그는 “저 역시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생존자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저 같은 아이와 제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 이라고 말하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가족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일은 엄청난 필요를 채우는 일이다. 매사추세츠에서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폭력의 피해를 겪는 이들에게 이런 지원은 매우 큰 선물” 이라고 국제선 활동을 격려했다. 감사는 국제선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랜랜드 한인교회 이길표 목사는 격려사에서 “한 사람의 반복되는 삶의 방식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국제선이 30년 동안 정기적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식사하고, 삶을 나누며 서로 격

려해 온 것은 이 공동체의 신실함을 보여준다.” 고 말하고 “저는 삶에 루틴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한다. 왜냐하면 그 루틴은 그 사람의 핵심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 이라고 국제선 회원들에게 존경을 표했다.

이 목사는 “신실한 삶은 우리를 세우고, 사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며, 분명한 방향성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저하지 않게 한다.” 며 국제선 모임의 30년 역사를 신실함, 사명을 인지하는 정체성, 분명한 방향성 등 세가지 핵심 가치로 정리했다.

국제선 모임의 창립 초기 핵심 역할을 해왔던 유영심 전회장은 애틀랜타에서 방문해 자신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50대였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진 축하무대에서는 보스톤·시코스트지회의 김인숙, 김다혜, 김미나, 김명숙, 황선미, 유저예, 김수

진 씨가 참여한 난타와 부채춤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린다 챔피언 시민협회 회장은 서퍽 지검장에 출마했음을 밝히고 “내 사명은 더 이상 어떤 시니어들도 사기를 당하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시니어들을 위해 일하고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3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에는 약 200여명에 가까운 한인들 및 미국인들이 참여해 한국 음식과 음악 그리고 푸짐한 경품행사를 즐겼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올림...허익수 거문고 연주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는 오는 5월 17일, 〈한국 전통음악 시리즈〉의 일환으로 허익수 거문고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보스톤 서쪽에 위치한 서드베리(Sudbury, MA)에서 일요일 오후에 하우스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2024년에 시작된 〈한국 전통음악 시리즈〉는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서수준 높은 국악을 감상할 수 있어 지역 사회와 커뮤니티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교수이자 전통악기혁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인 허익수는 거문고 연주자이자 작곡가, 연구자로서 한국 전통음악의 현대적 확장을 이끌고 있는 예술가이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로

〈전체 기사 읽기〉

활동하며 전통음악의 현대화를 선도해왔다. 또한 다양한 신작 초연과 국제 협업을 통해 거문고의 표현 영역을 확장해왔으며, 2025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거문고 산조 이수자로 선정되어 정통성을 갖춘 연주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중광 〈상령산〉, 〈다스름〉, 〈태평가〉 등의 독주곡과 더불어, 장구반주와 함께 하는 〈달무리〉, 〈거문고 산조〉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통 관악기 및 타악기 연주자 정우성이 장구반주를 맡아 함께 무대를 꾸민다.

주최 측은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매진이 예상된다” 며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했다.

〈공연 정보〉
권장 입장료: \$20
상세 내용: www.kcsboston.org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황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929.600.4880

전화주문 서비스

별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케임브리지 '포치페스트', 7월 11~12일 두 번째 행사

캠브리지포트 · 리버사이드 · 더 포트 등 3개 동네로 확대...
5월 4일부터 등록 시작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 지역에서 여름의 명물 풍경으로 자리 잡은 '포치페스트(Porchfest)'가 올여름 케임브리지에서 두 번째로 열린다.

보스턴글로브는 26일 케임브리지가 지난해 첫 번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올해는 훨씬 더 큰 규모로 행사를 펼친다고 전했다.

포치페스트는 도시 곳곳의 주택 현관(porch) 앞이나 마당에서 동네 주민과 음악가들이 무대를 꾸며 음악을 들려주는 자생적(DIY) 음악 축제다. 2011년 서머빌에서 시작된 이후 매사추세츠와 뉴잉글랜드 전역의 시와 타운으로 퍼져 나갔다. 5월부터 9월 사이 몰든, 프로비던스, 데드 등 수십 개 지역에서 포크밴드, 록그룹, 블루그래스 연주자, 클래식 사중주단이 한데 어우러진다.

지난 15년 가까이 포치페스트가 인근 도시들로 확산되는 동안 케임브리지는 줄곧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지난해 여름 처음으로 자체 포치페스트를 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행사를 주관한 케임브리지 예술위원회 제이슨 위스 사무총장은 보스턴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케임브

리지의 낮은 합류가 인재나 DIY 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케임브리지 카니발, 리버아츠 페스티벌, 헤드 오브 더 찰스 레가타 같은 행사로 도시 일정이 이미 빼곡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위스 사무총장은 서머빌과 정면승부를 벌일 생각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서머빌은 거대한 존재다. 정말 대단하다"며 "보스턴에서 열리는 7월 4일 불꽃놀이를 우리가 따라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했다. 서머빌 포치페스트에서는 지난해 400개가 넘는 밴드가 공연했으며, 늘어나는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시 당국은 이동식 화장실 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 정도다.

케임브리지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 지난해 첫 행사에서는 캠브리지포트(Cambridgeport) 동네의 일부 주택과 센트럴 스퀘어(Central Square)의 일부 상점 앞으로 공연장소를 한정했다. 그럼에도 25개 장소에서 80개 이상의 음악단체가 공연했다고 시 당국은 집계했다. WBUR 보도에 따르면 인구 약 1만 8천 명의 케임브리지 시 전체로 행사

〈전체 기사 읽기〉

를 확대하기 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첫해는 일부 지역으로 제한한 것이다.

올해 두 번째 행사는 7월 11일 토요일과 12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첫째 날인 11일에는 캠브리지포트와 인접한 리버사이드(Riverside), 더 포트(The Port) 등 세 개 주거 지역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둘째 날인 12일에는 케임브리지의 대표적 상권인 센트럴 스퀘어와 하버드 스퀘어(Harvard Square)에서 상점 · 식당 앞 공연이 이어진다. 공연 시간은 양일 모두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료는 없다. 메인 거점은 캠브리지포트의 다나 파크(Dana Park) 일대다.

호스트(현관 · 마당을 무대로 제공할 주민), 연주자, 자원봉사자 등 등록은 5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등록과 자세한 정보는 케임브리지 예술위원회와 캠브리지포트 홈페이지(www.cambridgeport.org/porch-fe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장르와 모든 연령이 환영된다.

위스 사무총장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케임브리지 포치페스트는 서머빌처럼 시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서머빌 포치페스트(5월 9일)보다



두 달 늦게 열린다.

지역 음악인들도 새 행사를 반기고 있다. 지난해 케임브리지 포치페스트에 참여했던 케임브리지 밴드 '걸리 앤 더 팝스(Girly and the Pops)'의 보컬 니코 치리보가는 "보통은 술집에서만 연주하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가 모이는 공개된 자리에서 음악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다"며 "낯선 사람들의 다양한 단면을 한자리에서 만날 기회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서머빌 포치페스트(Somerville PorchFest) 2026

올해는 물리는 인파에 대비해 시 당국이 이동식 화장실 수를 늘리고, 소방 · 응급 차량 통행을 위해 일부 도로에서는 공연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요 정보

날짜: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시간: 낮 12시~오후 6시
공연 규모: 약 500개 음악 공연 예정
운영 방식: 시 전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2시간씩 순차 진행
서부 구역(윌로우 애비뉴 서쪽): 낮 12시~오후 2시
중앙 구역(윌로우~센트럴 스트리트 사이): 오후 2시~4시
동부 구역(센트럴 스트리트 동쪽): 오후 4시~6시
참조: somervilleartscouncil.org/porch-fest
hsb@bostonkorea.com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SMART DETAL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매사추세츠 바이오텍 IPO 가뭄 끝?... 한 주에 3건, 6억 달러 모금

카일레라, 매사추세츠 사상 최대 IPO... 비만 치료제로 모더나 기록 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바이오 업계가 수년간의 기업공개(IPO) 가뭄을 끝내고 활기를 되찾고 있다.

보스톤 비즈니스 저널은 4월 28일자 보도에서 이번 한 주 동안에만 매사추세츠에 본사를 둔 바이오텍 3곳이 IPO를 진행해 총 약 6억 달러를 모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사추세츠에서 IPO에 성공한 바이오기업이 단 두 곳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극적인 반전이다.

미국 IPO 분석업체 르네상스 캐피탈에 따르면 이번 주 시프트 테라퓨틱스 아발린 파마(Avalyn Pharma), 헤맵 테라퓨틱스(Hemab Therapeutics)가 모두 상장 일정을 잡았다. 각각 약 1천 180만 주씩 주당 16~18달러에 매각해 약 2억 달러를 모금하는 것이 목표다.

2026년의 바이오텍 IPO 회복은 수년간 이어진 어려운 경제 및 정치 환경 끝에 나타난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투자자와 기업들은 주식 상장 시장에서 발을 뺐다. 그러나 금리가 소폭 떨어졌고, 인수합병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바이오텍 업계 건강 지표로 통하는 S&P 바이오텍 ETF는 지난 6개월간 20% 상승했다.

서머빌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신약 개발사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신스(틱커 GENB)의 마이크 넬리 최고경영자(CEO)는 보스톤 비즈니스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상

〈전체 기사 읽기〉

장을 미뤄 왔던 기업들이 정체를 지나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신스 자신도 올해 초 IPO를 통해 4억 달러를 모금했다. 그는 "지난해 3분기 말까지만 해도 우리는 상장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또 다른 사모 자금 조달을 검토하던 중이었다"며 "그러나 일부 주주와 잠재 주주들이 최근 바이오텍 지수 반등과 M&A 물결을 거론하며 공모 시장 진입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넬리 CEO가 이끄는 제너레이트는 지난해 자사의 천식 치료제를 후기 임상 단계로 진입시켰는데, 경증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1상 임상을 진행한 덕분에 2상 임상을 건너뛸 수 있었다. 보스톤에 본사를 둔 악티스 온콜로지(Aktis Oncology, 틱커 AKTS)도 IPO에서 약 3억 1천 800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번 회복 흐름의 정점은 매사추세츠 월담에 본사를 둔 비만 치료제 개발사 카일레라 테라퓨틱스(틱커 KLRA)다. 카일레라는 4월 17일 IPO에서 6억 2천 500만 달러를 모금해 매사추세츠 바이오텍 사상 최대 IPO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18년 모더나(틱커MRNA)가 세운 6억 400만 달러 기록을 갱신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카일레라는 약 3천 900만 주를 주당 16달러에 매각했으며, 이는 14~16달러로 제시됐던 공모 가격대의 최상단이다. 공



캠브리지에 위치한 케임브리지 혁신 센터(CIC). (사진=CIC 웹사이트 캡처)

모에는 두 자릿수 배수로 청약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첫날 카일레라 주가는 63%가 급등해 26달러로 마감했고, 시가총액은 약 31억 달러로 평가받았다. 이번 IPO는 2021년 사나 바이오 테크놀로지(Sana Biotechnology)의 6억 7천 600만 달러 IPO 이후 미국 바이오텍 사상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카일레라가 노리는 시장은 2030년까지 2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다. 회사는 중국 장수 행루이(Jiangsu Hengrui) 제약에서 라이선스한 자산을 바탕으로 설립됐으며, 핵심 파이프라인인 주사용·경구용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리부파타이드'의 후기 임상에 IPO 자금 대부분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넬리 CEO는 2026년 IPO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후기 임상 자산'을 꼽았다. 그는 "시장이 플랫폼 회사나 전임상 단계 회사를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옮겨 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IPO에 성공한 기업 대부분의 공통점은 임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IPO 빈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부풀려졌던 거품에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낮은 금리와 과학 연구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결합되며 전임상 단계 기업들까지 줄줄이 상

장하던 시기가 있었다. 매사추세츠에서만 2021년 한 해 25개 바이오텍이 IPO에 성공했다. 이후 2023년에는 단 3건, 2024년에는 6건, 2025년에는 2건으로 곤두박질쳤다. 2025년 IPO에 성공한 두 곳은 월담의 시오나 테라퓨틱스(2월 IPO로 1억 9천 100만 달러 모금)와 중추신경계(CNS) 신약 개발사 맵라이트 테라퓨틱스(10월 IPO)였다.

넬리 CEO는 2026년의 회복 흐름을 두고 "여전히 회복의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동의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일라이 릴리, 또 케임브리지 바이오텍 사들여... 일주일 새 두 번째 인수

백혈병 치료제 개발사 에이제스 23억 달러 인수, 도체스터 켈로니아 70억 달러 인수에 이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대형 제약사 일라이 릴리 (Eli Lilly, 티커: LLY)가 한 주 사이에 두 번째로 매사추세츠 바이오텍을 인수했다.

보스턴 비즈니스 저널은 4월 27일자 보도에서 일라이 릴리가 케임브리지와 뉴욕에 자리한 에이제스 테라퓨틱스(Ajax Therapeutics)를 최대 2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주일 전인 20일에는 도체스터에 본사를 둔 켈로니아 테라퓨틱스(Kelonia Therapeutics)를 최대 7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에이제스는 2019년 설립된 비상장 바이오텍이다.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와 뉴욕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회사의 출발점은 대나파버 암연구소가 참여한 학술 컨소시엄이었다

. 골수섬유증이라는 희귀 혈액암의 새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결성된 이 컨소시엄에서 분사한 형태로 회사가 탄생했다.

골수섬유증은 골수에 광범위한 섬유 흉터가 생겨 정상적인 혈액세포 생산이 방해받는 만성 혈액암이다. 에이제스가 개발 중인 후보물질 'AJ1-11095'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경구용 알약 형태로, 현재 1상 임상 시험(AJX-101) 단계에 있다. 기존 1형 JAK2 억제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골수섬유증 환자가 대상이다. 이 약물은 같은 표적(JAK2 단백질)에 작용하지만 결합 방식이 달라, 기존 약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도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첫 임상 결과는 올해 후반에 발표될 예정이다.

마틴 보겔바움 에이제스 공동창업

〈전체 기사 읽기〉

자 겸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는 에이제스의 창립 단계부터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에이제스는 2024년 5월 시리즈 C 라운드에서 9천 500만 달러를 모집했으며, 골드만삭스 얼터너티브스, 일라이 릴리, 비보 캐피털, RA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이 참여했다. 그 전인 2021년에는 4천만 달러를 모집한 바 있다.

이번 인수는 선금금과 임상·규제 단계 도달 시 추가 지급되는 마일스톤 지급금을 합쳐 최대 23억 달러 규모다. 일라이 릴리는 구체적인 금액 분배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거래는 통상적인 계약 종결 조건과 반독점 규제 승인을 거쳐야 마무리된다.

이번 인수는 일라이 릴리가 일주일 사이 보스턴 일대에서 진행한 두 번째 혈액암 분야 거래 인수다. 지난 20일 회사는 도체스터에 본사를 둔 켈로니아 테라퓨틱스를 최대 7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켈로니아는 다발성 골수종을 1회 투여로 치료하는 카티(CAR-T) 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초기 임상에서 유망한 결과를 보였다. 카티 치료제는 기존에는 환자의 면역세포를 채취해 공장에서 유전자 조작 후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켈로니아의 접근법은 환자 몸 안에서 직접 면역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하는 일회성 유전자 치료법이다.

업계 전문지 파이어스바이오텍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의 인수합병 행보는 거의 매주 단위로 이어지고 있다. 보스턴글로브와 바이오파마 다이브도 일라이 릴리가 차세대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본사를 둔 일라이 릴리는 비만 치료제 '젠퍼운드(Zepbound)'와 당뇨병 치료제 '문자로(Mounjaro)'의 폭발적 성공으로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



이며,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항암제와 혈액암 치료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매사추세츠바이오 산업계는 지난 몇 년간 자금 시장 위축과 임상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 본사를 둔 바이오텍 3곳이 동시에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며 약 6억 달러를 모금하는 등 IPO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동시에 대형 제약사들의 지역 바이오텍 인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일라이 릴리가 일주일 사이 매사추세츠에서 두 건, 합쳐 최대 93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단행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이나트레이스 주가 급등,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 지분 확보 보도

AI 전환 활용 압박... “주주가치 극대화 방안 열어둬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월담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기업 다이나트레이스(Dynatrace)의 주가가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 밸류(Starboard Value)의 지분 확보 보도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6%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가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타보드는 다이나트레이스 지분을 확보하고 회사가 인공지능(AI) 전환 흐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타보드가 현재 다이나트레이스의 상위 5대 주주에 포함됐으며, 최근 몇 달 동안 다이나트레이스 경영진과 비공개 접촉을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스타보드는 다이나트레이스 이사회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보드와 다이나트레이스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주가 상승은 단순한 실적 기대보다는 행동주의 투자자의 개입 가능성에 시장이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스타보드는 다이나트레이스가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산업 흐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사회가 주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으로 전해졌다.

다이나트레이스 주가는 28일 정 규장에서 0.9% 상승 마감했으며, 회사의 시장가치는 약 106억 달러로 평가됐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주가는 23% 하락했다. 이 같은 주가 부진은 행동주의 투자자가 경영 전략 변경이나 비용 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이나트레이스는 2014년 사모펀드 토마 브라보가 컴퓨터(Compuware)로부터 인수한 뒤,

〈전체 기사 읽기〉

2019년 다시 상장됐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토마 브라보는 현재 다이나트레이스 주주가 아니다.

스타보드는 기업 지분을 확보한 뒤 경영진과 이사회에 전략 변경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 회사 중 하나다. 이번 다이나트레이스 지분 확보도 회사가 AI 전환 국면에서 성장 기회를 충분히 주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매사추세츠 첫 주택 구매자에 2만5천 달러 무이자 지원

▶▶1면에 이어서

독주택, 콘도, 2가구에서 4가구 주택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사추세츠 공식 안내는 신청자가 소득 자격을 충족한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하며, 매사추세츠 모기지과 함께 다운페이먼트 지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소득 기준은 해당 지역 중위소득(area median income, AMI)의 135% 이하로 일부 지역의 경우 연소득 20만5천335달러 미만 가구도 매사추세츠 모기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정부가 공개한 지역별 자격 소득 한도는 보스턴 대도시권인 그레이터 보스턴 일대의 경우 연 20만5천335달러다. 우스터 카운티는 연 16만5천645달러, 버크셔 지역은 연 13만7천565달러, 햄든 카운티는 연 12만9천870달러다.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의 자격 한도가 20만5천 달러를 넘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통상 저소득 또는 중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맞벌이 가구도 상당수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인 맞벌이 부부 가운데 의료, IT, 학계, 교육, 공공기관 분야에서 일하는 가구는 자격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매사추세츠 주택 시장에서 다운페이먼트가 첫 주택 구매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집값이 높고 모기지 금리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초기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주택 구매를 미루는 가정이 많다. 2만5천 달러 무이자 지원은 집값 자체를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첫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매사추세츠는 2023년 초 이후 19억 달러 이상의 모기지 자금을 제공해 약 5천900가구의 주택 구매를 도왔다. 같은 기간 4천757건의 다운페이먼트 지원 대출을 제공했으며 매사추세츠를 통한 모기지 5건 중 4건이 다운페이먼트 지원과 함께 이뤄졌다. 지난 18개월 동안 매사추세츠를 이용한 첫 주택 구매자 거의 전원이 다운페이먼트

트 지원에 의존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이와 함께 고려할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매사추세츠 파트너십 (Massachusetts Housing Partnership, MHP)이 운영하는 원모기지(ONE Mortgage)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낮은 고정금리, 3% 다운페이먼트, 민간 모기지 보험(PMI) 없는 구조, 자격 있는 구매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보스턴 거주자가 보스턴 안에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원플러스 보스턴(ONE+Boston)도 검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스턴시에 거주하면서 보스턴 안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구매 교육 수강과 소득 기준 충족 등이 필요하다.

또한 힐리 행정부는 어포더블홈액트(Affordable Homes Act)에 따라 신설된 매사추세츠 주택 소유 세액공제(Massachusetts Homeownership Tax Credit)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매사추세츠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2029년까지 매년 최대 1천만 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해 중간소득층을 위한 신규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기지 지원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매사추세츠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매사추세츠 승인 대출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매사추세츠는 직접 모기지를 신청받는 기관이 아니라, 승인된 은행·모기지 회사·크레딧 유니언 등 파트너 대출기관을 통해 대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첫 주택 구매자 교육도 중요하다. 매사추세츠는 승인된 주택 구매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교육은 주택 구매 절차와 예산 설정, 신용 관리, 클로징 비용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매사추세츠 공식 안내도 주택 구매 교육 수강을 신청 단계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무이자 지원은 신청 기간이 7월 31일까지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는 한인 가정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보스턴 시내 잇따른 무장 강도... 사흘 새 은행 두 곳·캔디샵까지

락스베리·로슬린데일 은행 강도 후 사우스엔드 사탕 가게 흥기 강도... "주의 당부"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시에 한동안 보이지 않던 강력 강도 범죄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월 28일 오전 락스베리(Roxbury)와 로슬린데일(Roslindale)에서 무장 은행 강도 사건 두 건이 두 시간 사이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에는 사우스엔드(South End)의 인기 사탕 가게에서 흥기를 든 강도 사건이 추가로 일어났다.

보스턴글로벌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28일 오전 10시 직후 락스베리 워싱턴 스트리트의 샌탠더(Santander) 은행 지점에서 일어났다. 두 명의 남성이 이 지점을 털고 도보로 도주했다. 그로부터 채 두 시간이 지나지 않은 정오 직전, 로슬린데일 아메리칸 리전 하이웨이에 있는 TD뱅크(TD Bank) 지점에서 두 번째 강도 사건이 신고됐다. 두 명의 남성이 은행에 들어와 총기로 위협하며 창구 직원에게 돈을 요구했고, 또 다른 한명은 밖에서 차량을 대기시킨 채 망을 봤다.

경찰은 두 사건이 같은 일당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로슬린데일 TD뱅크 지점은 락스베리 샌탠더 지점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 남쪽에 위치한다. 용의자들은 두 은행에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액수의 현금을 가져갔으며, 28일 오후 늦게까지도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다.

락스베리 사건의 용의자들에 대해 경찰은 다음과 같이 인상착의를 공개했다. 한 명은 피부가 밝은 편이고 키 약 170cm(5피트 7인치)이며, 연한 파란색 나йки 테크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흰 글씨가 적힌 검정 챔피언 후드티 차림이었다. 두 사람 모두 검정 바지에 검

〈전체 기사 읽기〉

정 안면 마스크, 그리고 파란 장갑을 끼고 있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해리스 애비뉴를 따라 오차드 파크 쪽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로슬린데일 TD뱅크 지점에 들어온 두 남성은 락스베리 사건의 용의자들과 비슷한 차림이었으며, 매사추세츠 번호판 '4MXN78'을 단 파란색 도요타 라브4 차량을 타고 아메리칸 리전 하이웨이를 따라 커민스 하이웨이 방향으로 도주했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 직후 사우스엔드 클라렌스 스트리트 47번지 마들렌 캔디샵(Madeleine's Candy Shop)에서 또 다른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보스턴글로벌 4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 남성 용의자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흥기를 들고 가게 안에 들어와 계산대를 열고 요구하고,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석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목격자는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가 계산대에서 정확하지 않은 액수의 현금을 가져간 뒤 가게를 빠져나갔다고 진술했다. 보스턴 경찰의 존 보일 수사반장은 출동한 경찰이 인근을 수색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사건은 수사 중이다.

마들렌 캔디샵은 2025년 2월 1일에 문을 연 스웨덴식 사탕 전문점이다. 임상 연구직을 그만두고 사탕 가게를 차린 29세 여성 마들렌 브레이스 대표가 운영하며, 클라렌스 스트리트와 애플턴 스트리트 교차로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

hsb@bostonkorea.com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턴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턴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우스터 한인 연합 감리 교회가
예배 장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새 예배당 주소 :
**64 Salisbury St,
Worcester, MA 01609**

예배 시간 : 주일 오후 2:30
친교 시간 : 주일 오후 3:30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Worcester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64 Salisbury St, Worcester, MA 01609
Tel: 508.799.4488 Email: office@workmc.org
http://workmc.org

보스턴 발레, 시즌 마무리 무대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시티즌스 오페라 하우스서 5월 28일 개막 6월 7일까지 12회 공연
차이콥스키 음악 라이브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박현아 기자 = 보스턴 발레단(Boston Ballet)이 올 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작품으로 마리우스 프티파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The Sleeping Beauty)'를 무대에 올린다.

보스턴발레단의 대표적인 레포토리 중의 하나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보스턴 시내 시티즌스 오페라 하우스(Citizens Opera House, 539 Washington St.)에서 모두 12회에 걸쳐 열린다.

프티파의 안무에 영국 왕립 발레단의 거장 프레더릭 애슈턴의 안무가 더해졌고,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음악은 보스턴 발레 오케스트라가 라이브로 연주한다. 무대 세트와 의상은 에미상을 수상한 디자이너 데이비드 워커가 디자인했다.

미코 니시넨 예술감독은 보도자료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만큼 클래식 발레 기법의 모든 면을 담아낸 작품은 드물다"며 "까다로운 안무와 차이콥스키의 빛나는 음악이 우리 무용수들을 정밀함, 지구력, 우아함이 동시에 요구되는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작품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령의 관객이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발레 중 하나"라며 "오랜 발레 애호가뿐 아니라 처음 발레를 접하는 관객 모두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야기는 오로라 공주의 세례식에서 시작된다. 요정들이 어린 공주에게 축복을 선물하기 위해 초청되지만, 사악한 요정 카라보스는 초청받지 못한다. 분노한 카라보스는 공주가 물레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린다. 라일락 요정이 그 저주를 누그러뜨려 공주는 죽지 않고 백 년 동

〈전체 기사 읽기〉

안 잠들었다가 왕자의 입맞춤으로 깨어나게 된다.

백 년 후 라일락 요정에 이끌려 성에 도착한 데지레 왕자가 오로라 공주에게 입맞춤하며 마법이 풀리고, 발레는 동화 속 인물들이 모두 모이는 성대한 결혼식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작품의 역사 또한 깊다. 프티파와 차이콥스키의 합작품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1890년 1월 1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Mariinsky Theatre)에서 초연됐다. 이 작품을 서구에 처음 소개한 인물은 마린스키 극장의 전 무대감독이자 프티파의 조수였던 니콜라이 세르게예프다. 그는 1918년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망명하면서 약 20여 편 발레 작품의 안무 노트를 가지고 떠났고, 1921년 디아길레프의 발레 뤼스를 위해, 그리고 1939년 니네트 발루아가 이끈 빅 웰스 발레단(후일 영국 왕립 발레단)을 위해 이 작품을 다시 무대에 올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 2월 20일,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코네티컷 가든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재개관 공연 작품으로 선택돼 전후 영국 발레 부흥의 상징이 됐다. 1977년 드 발루아가 작품을 부활시키며 데이비드 워커에게 새 무대와 의상을 의뢰했고, 보스턴 발레단은 1992년 이 무대와 의상을 사들였다. 보스턴 발레단의 이 버전은 2005년 처음 선보인 후 2009년, 2013년, 2017년, 2018년, 2023년에 걸쳐 무대에 올랐다.

마리우스 프티파(1818~1910)는 '클래식 발레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거의 60년 동안 마린스키 극장에서 무용수와 안무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남녀 주인공 채지영 및 제프리 사이로 수석무용수의 2024년 공연 모습(사진 = 보스턴발레)

가로 활동하며 호두까기 인형, 지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돈키호테, 라 바야데르(La Bayadère), 코펠리아 등 오늘날 모든 주요 발레단의 단골 레포토리를 안무하거나 재구성했다. 그는 또 솔로 무용수의 장식 역할에 그치던 군무(corps de ballet)를 적극 활용했고, 클래식 파드되(pas de deux)를 아다지오, 남녀 솔로 변주, 코다의 세 부분 구조로 정형화했다. 그가 정립한 가장 뛰어난 파드되 가운데 일부가 바로 이번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등장한다. 공연 시간은 약 2시간 50분이며, 20분짜리 인터미션이 두 차례 있다.

티켓은 보스턴 발레단 공식 홈페이지(bostonballet.org), 박스오피스 전화(617-695-6955), 또는 시티즌스 오페라 하우스 박스오피스 현장 구매로 살 수 있다. 발레단은 제3자 중개 사이트가 아닌 공식 경로를 통한 구매를 권한다.

티켓 구입 팁과 발레 관람 복장 규정

군경할인: 보스턴 발레단의 티켓은 공식 가격 구조 외에 군인 및 군인 가족, 소방관·경찰·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등 응급요원에게는 일부 일정과 좌석 구역에서 티켓 1

매당 30달러 할인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티켓은 박스오피스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러시티켓: 매진되지 않은 공연에 한해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시티즌스 오페라 하우스 현장에서 일반 러시(rush) 티켓이 60달러에 선착순 판매되기도 한다.

저소득층 할인: EBT, WIC, 커넥터케어(ConnectorCare) 카드 소지자는 매당 10달러에 최대 4매까지 구매할 수 있는 저소득층 할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복장 규정: 별도의 복장 규정은 없다. 보스턴 발레단은 "오늘 밤은 당신의 시간이니,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 줄 옷차림으로 공연을 즐겨 달라"고 전했다.

공연일정:

Thursday, May 28 at 7:30 pm
Friday, May 29 at 7:30 pm
Saturday, May 30 at 1:30 and 7:30 pm
Sunday, May 31 at 1:30 and 7:30 pm
Wednesday, June 3 at 7:30 pm
Thursday, June 4 at 7:30 pm
Friday, June 5 at 7:30 pm
Saturday, June 6 at 1:30 and 7:30 pm
Sunday, June 7 at 1:30 p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턴 새소망 글로벌감리교회

BOSTON NEW HOPE GLOBAL METHODIST CHURCH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주일 예배 : 오후 2:30
장소 :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새벽 기도회 : 화-토 오전 6시 (ZOOM)
수요성경공부 : 오후 8시 (ZOOM)
지역선교 : 행복 시니어 학교 매월 넷째 주
(문의 : 김지영 권사. 603.674.3415)

진남조 목사 : 201.667.9777
namjojin@gmail.com

www.bnhkgmc.org



브랜다이스대 지원자 40% 급증... 레빈 총장의 '대학 재설계' 효과?

4개 단과대학 개편, 성적증명서와 마이크로크레덴셜 도입
이사회 2천500만 달러 지원으로 변신 시도

(보스턴=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주 월담(Waltham)에 자리 잡은 브랜다이스대학교(Brandeis University)가 대대적인 학사 개편을 추진한 뒤 신입생 지원자가 1년 만에 40% 늘었다. 미국 대학 입시 시장이 위축되고 일부 중소 사립대학들이 등록 감소와 재정 압박을 겪는 가운데 나온 변화여서 매사추세츠 고등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스턴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변화의 중심에는 1970년 브랜다이스 졸업생이자 현 총장인 아서 레빈이 있다. 컬럼비아대 교원대학(Teachers College) 총장과 우드로 윌슨 펠로우십 재단 회장을 역임한 그는 미국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힌다.

14권의 저서를 펴낸 레빈 총장은 2024년 11월 1일 론 리보위츠 전 총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한 뒤 '20개월 임시 총장'으로 모교에 돌아왔다. 그러나 이사회는 지난해 그에게 정식 총장직을 제안했고, 레빈 총장은 자신이 추진하려는 '브랜다이스 플랜(Brandeis Plan)' 실행에 필요한 2천500만 달러를 이사회가 모금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했다. 이사회가 신속히 모금에 동의하면서 그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로 연장됐다.

'브랜다이스 플랜' 핵심은 대학

교육을 졸업 후 진로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레빈 총장이 동료 스콧 벤 펠트와 함께 펴낸 신간 '대격변에서 행동으로(From Upheaval to Action)'는 미국 고등교육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처방을 담고 있다. 그는 미국 전체 대학의 20%에서 25%가 향후 몇 년 안에 문을 닫을 수 있으며, 특히 작은 대학들이 즉각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가 책에서 제시한 해법을 모교에서 직접 실험하고 있는 셈이다.

브랜다이스가 지난해 가을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모든 학부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학업 어드바이저와 진로 어드바이저를 각각 배정받는다. 졸업생은 기존 학업 성적증명서와 함께 학생이 실제로 익힌 직무 역량을 기록한 '두 번째 성적증명서'도 받게 된다. 이 두 번째 성적증명서는 마이크로크레덴셜(microcredentials), 즉 직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역량별 인증 체계와 연결된다.

학교 조직도 4개 단과대학으로 재편된다. 새 단과대학은 인문·문화대학(School of Arts, Humanities and Culture), 경영·경제대학(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과학·공학·기술대학(School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사회

〈전체 기사 읽기〉

과학·정책대학(School of Social Sciences and Social Policy)이다. 학부 자유교양 교육과 기존 대학원·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이론 학습과 실무 적용을 한 구조 안에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브랜다이스는 또 새 진로·응용 자유교양 센터(Center for Careers and Applied Liberal Arts)를 신설해 2026년 가을 정식 출범시킨다. 이 센터는 모든 학생에게 진로 상담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는 실험실 역할도 맡는다.

마이크로크레덴셜 시범 프로그램으로는 응용통계분석(Applied Statistical Analysis), 데이터 분석 기초(Foundations of Data Analysis), 사람 중심 연구·분석(Person-Centered Research and Analysis), 정책 분석·이행(Policy Analysis and Implementation), 음향·영상미디어(Sound and Video Media) 등 5개 과정이 먼저 제공된다. 등록 시작 5일 만에 130명이 신청해 학교 측은 "놀라운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이 개편안은 지난해 봄 교수회 표결에서 거의 90%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미국 대학에서는 주요 학사 개편이 교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90%에 가까운 찬성률은 이례적이다. 학교는 2025년 7월 4개 단과대학 학장을 임명하고 본격적



인 시행 준비에 들어갔으며, 2026년 가을 입학하는 2030학년부터 새 체계가 전면 적용된다.

레빈 총장은 보스턴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들은 정말로 자녀가 일자리를 얻지 못할까 걱정한다. 우리는 일자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등교육 기관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시기"라며 "나는 무언가 고치는 일을 사랑한다. 손재주는 별로 없지만 대학을 고치는 일은 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입시 시장에서 일단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립대학 입학 지원자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브랜다이스의 가을 학기 신입생 지원자는 1년 만에 40% 급증했다. 새 학사 체계는 올해 가을부터 본격 시행된다.

레빈 총장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ASU+GSV 정상회의'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글로벌 실리콘밸리와 애리조나주립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교육과 직무 능력 분야의 변화를 이끄는 인물들을 매년 선정한다.

브랜다이스는 1948년 매사추세츠 월담에 설립된 4년제 사립 종합대학으로, 한인 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인지도 있는 사립대학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학생 1인당 교수 비율이 낮고 자유교양 중심 교육과 연구대학의 성격을 결합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학 전반의 등록 위기 속에서 브랜다이스 역시 재정 안정성과 미래 경쟁력을 둘러싼 평가를 받아왔다.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한인 학부모라면, 매사추세츠 안에 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한국계 학생도 꾸준히 진학해 온 브랜다이스의 변화를 눈여겨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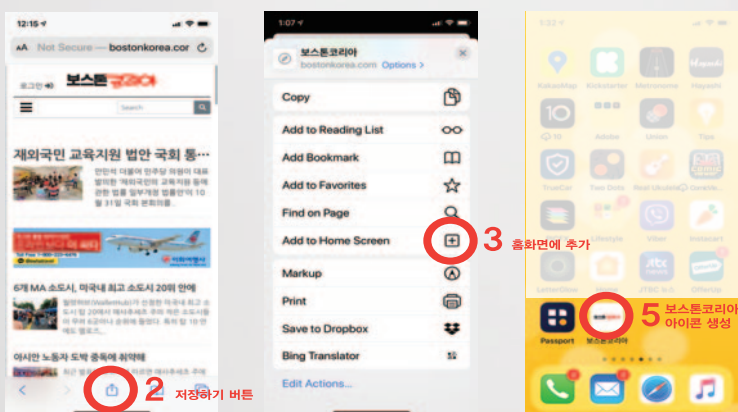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주지사 부른 중국계 후원망, 한인사회 정치력 공백 드러내

▶▶1면에 이어서

서 참석자들에게 11월 선거에서 투표하고, 주변에 선거의 중요성을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행사 말미에 주최자인 레버렛 윈은 힐리 주지사가 “매우 자금력이 큰 상대들”과 맞서고 있다며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후원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이 2026년 힐리 캠페인에 최대 1천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이미 그 한도까지 기부한 사람들은 매사추세츠 민주당 주 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인사회에 입장에서 이번 행사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가장 최근 서퍽 지검장에 출마한 린다 챔피언을 위한 모금을 제외하고 한인사회가 주요 정치인들을 위한 기금모금 행사를 했던 것이 기억에 가물가물할 정도다.

정기적으로 열리던 미셸 우 시장을 위한 선거자금 모금행사는 팬데믹 이후 자취를 감췄다. 올해 들어 앤 고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했으나 그를 위한 선거자금 모금행사조차 열리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출마 당시에는 남궁연 전 재관위원장 자택에서 기금모금행사를 개최한 것이 한인사회가 단체로 선거기금모금 행사를 가졌던 마지막 사례였다.

한인사회는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게 많다.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출범했던 시민협회가 비영리단체로 전환하며 더 이상 공식적인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같은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다. 한동안 한인사회의 주축이었던 세택협회의 퇴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 한인 사회에 뜻을 모으던 주축들은 이미 은퇴시기에서도 한참을 지난 시점이 있고, 상당수는 타지역으로 이주했다.

한인회의 활동의 축소도 그 한 축을 담당하

다. 실제로 한인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과학 기술 계의 인사들의 모임인 과기협도 한인사회에 발걸음이 뜸한지 오래다.

이처럼 기존 한인사회의 조직이 위축되면서 가장 먼저 약해진 것은 한인사회의 정치 근육이다. 과거 웰드 주지사, 미트 롬니 주지사, 드별 패트릭 주지사 등을 위한 선거모금행사를 주최하면 단련됐던 근육은 말랑말랑해진 상태다.

미국 정치에서 선거기금모금 행사는 단순히 돈을 걷는 자리가 아니다. 후보와 커뮤니티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이다. 커뮤니티가 “우리는 표도 있고 후원자금도 있으며 조직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무대다. 정치인은 초청장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 자리에 누가 모이는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그 커뮤니티가 선거 때 실제로 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고 결정한다.

노련한 레버렛 윈 주최의 이번 행사는 그런 점에서 교과서에 가까웠다. 행사장은 주청사에서 가까웠고, 주지사가 업무를 마치고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고려했다. 주지사는 짧은 시간 안에 인사, 사진 촬영, 연설을 마치고 다음 일정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행사 말미에는 후원 요청도 분명하게 이뤄졌다.

한인사회가 약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한인들은 개인적으로 성공했고, 전문직과 비즈니스, 학계, 과학기술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개인의 힘은 커뮤니티 정치적 역량으로 묶여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 때 후보를 초청하고 후원자를 모으고, 정책 요구를 전달하고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는 조직적 장치가 부족하다. 인구는 늘었지만 한인사회의 정치적 역량이 결코 성장하지 못한 이유다.



28일 소수의 펀드레이징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라 힐리 주지사

한인사회가 지금까지 주지사급 정치인을 초청한 본격적인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열지 못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돈과 사람은 흩어져 있으며, 이를 묶는 정치적 리더십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원로 인사들이 담당하던 연결 역할은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세대의 정치 네트워크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이번 힐리 주지사 기금모금 행사는 그런 점에서 한인사회에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중국계 아시안 후원자들은 주지사를 부르는 행사를 만들었다. 한인 인사들은 그 자리에 참석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크다. 한쪽은 행사를 주최했고, 다른 한쪽은 참석했다. 정치권에서 주최자와 참석자의 무게는 다르다.

힐리 주지사 캠프는 이미 막대한 선거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힐리-드리스콜 재선팀은 2026년 1분기에만 230만 달러 이상을 모았고, 힐리 후보위원회 단독으로도 3월 말 현재 533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힐리 캠프가 아시안계 후원자들을 상대로 별도의 기금모금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선거자금 모금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조직력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중국계는 주지사를 불렀다. 한인사회는 이제 우리가 부르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야 한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조직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해도의 결핍인지 솔직하게 자문해 볼 순간이다. 주지사뿐만 아니다. 한인사회에는 앤 고도 있고 린다 챔피언도 있다. 정치의 계절에서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린다 챔피언 서명지 3천여명분 모아 제출...3파전 가능성

마감 직전 3일만에 2천 300여 서명 추가 확보 저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서퍽카운티 지검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계 2세 린다 챔피언 시민협회장이 28일 약 3천여 후보 추천 서명을 모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챔피언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서퍽 지검장 민주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선거 규정에 따르면 지검장 후보는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1천 명의 유효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주 선거관리 당국은 지검장 후보의 필요 서명수를 1천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서명 제출 마감은 4월 28일 오후 5시였다. 다만 최종 후보의 확정에는 제출된 서명이 지역 선거관리 당국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린다 챔피언은 서명지 마감을 불과 20여일을 앞둔 지난 6일 서명

지를 주무부에서 발급받았으며 1차 관문인 1천명 서명 모으기에 나섰다. 챔피언에 따르면 지난 25일 토요일까지 확보된 서명은 700여 명으로 약 300여 서명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마감일인 28일 화요일까지 3일만에 무려 2천 300여 서명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3천여 서명을 제출했다.

이는 짧은 기간안에 이뤄낸 상당한 성과다.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턴글로브를 인용, 6일 챔피언이 후보추천 서명지를 발급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현직 케빈 헤이든 지검장은 약 3만 5천여달러를 보유했으나 챔피언은 선거자금계좌에 전혀 돈이 없는 상태였다.

한편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린다 챔피언을 위해 2만 5천여 달러를 모금했다고 양미아 시민협회장은 알렸다. 린다 챔피언에 따르면 현

〈전체 기사 읽기〉

재까지 모금액은 약 3만 5천여달러 수준이다. 주 선거·정치자금국(Office of Campaign and Political Finance, OCPF)의 최근 공개 자료에 따르면 29일 현재 총 입금액은 3만 4,114달러로 챔피언이 밝힌 모금 규모와 대체로 일치한다.

챔피언의 서명 제출로 서퍽 지검장 선거구도는 3자 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직 케빈 헤이든 지검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으며 전 서퍽 지검장이자 보스턴 연방 지검장이었던 레이첼 롤린스도 출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챔피언의 이번 서명 제출은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남긴다. 불과 20여 일 만에 3천여 장의 서명을 모았다는 것은, 서명 확보에 팔을 걷어붙인 한인사회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례다. 또한 챔피언 선거본부의 입장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기본 조직력



25일 국제선 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는 린다 챔피언 변호사

이 형성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서명 확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후보 등록의 첫 관문을 넘었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에서는 지속적인 후원, 자원봉사, 유권자 접촉, 언론 대응, 조직 운영이 충

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서명제출에서 보여준 한인사회의 노력은 충분히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잠재력을 확인한 고무적인 사례다.

hsb@bostonkorea.com

AI 수도 샌프란시스코의 그늘, 정작 도시 경제는 침체

이코노미스트, 오픈AI·엔트로픽 품은 세계 AI 중심지
고급 주택가는 뜨겁지만 도심·고용·세수는 부진
“AI 붐이 도시 전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턴이 생명과학의 수도라면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의 수도로 불린다. 오픈AI와 엔트로픽 같은 대표 AI 기업이 자리 잡고 있고,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AI 유니콘 기업도 수십 곳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샌프란시스코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26일 샌프란시스코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부를 창출한 AI 산업의 중심지이면서도, 도시 전체로 보면 경제 회복이 더디고 고용·부동산·재정 측면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겉으로 보이는 AI 붐의 가장 강한 신호는 고급 주택 시장이다. 금문교 인근의 부촌인 퍼시픽 하이츠에서는 600만 달러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나온 주택이 최근 800만 달러에 팔렸다. 바다 전망을 갖춘 언덕 위 주택은 5,600만 달러에 거래됐다. 부유층 사이에서는 ‘맨션 부족’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고급 주택 가격 상승이 반드시 AI 부자들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미국 주

식시장의 상승과 전반적으로 강한 고소득층 자산 시장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햄프턴스나 에스펀 같은 미국 내 다른 초고가 주택 지역도 비슷하거나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전체 주택 시장은 오히려 약세다. 최근 미국 도시 중 가장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샌프란시스코 평균 주택 가격은 2022년 정점보다 15% 낮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주택 가격 하락폭은 4% 수준이다. 실질 임대료도 하락했다.

특히 금융지구 인근 사우스오브마켓(SoMa) 지역은 더 심각하다. 이 지역의 실질 주택 가격은 2022년보다 거의 40% 낮아졌고,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리에는 약물 중독자와 마약 거래상이 눈에 띄고, 완공 또는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 건물들도 남아있다.

주택 시장의 약세는 더 넓은 도시 경제 문제를 보여준다. 샌프란시스코는 보수 매체가 묘사하는 것처럼 완전한 붕괴 상태는 아니지만, 경제 지표는 예

〈전체 기사 읽기〉

상보다 약하다. AI 산업의 급성장은 오히려 기존 산업에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AI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미 팬데믹 기간 과잉 채용을 했던 테크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을 단행해 왔다. 비용 절감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야 고용은 2022년 정점보다 13% 감소했다. 이베이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약 35%는 여전히 비어 있다. 도심 유동인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보다 약 3분의 1 낮다. 관광업은 나쁘지 않지만, 호텔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높아지지 않았다.

대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기업 친화적 도시를 만들고 6억4,3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월 초에는 100명 이상의 시 공무원을 해고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각종 감독관, 위원회, 비영리단체 등이 도시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기업과 주민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중산층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대도시권의 노동력은 1% 줄었다. AI 혁명이 앞으로 더 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낸다면 도시에 활력을 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계속 샌프란시스코에 머물 것인 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는 11월 초 고액 자산가에게 일회성 순자산세를 부과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안이 통과되면 억만장자들은 순자산의 5%를 한 차례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조치가 통과될 경우 부유층의 캘리포니아 이탈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재정 문제도 커질 수 있다. 도심 유동인구 감소는 세일즈

텍스 수입을 줄이고, 약한 주택 시장은 재산세 수입을 압박한다. 2024년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샌프란시스코의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박탈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신용 평가사 피치가 샌프란시스코의 “지속적으로 큰 예산 격차”를 경고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AI 산업의 심장부지만, 도시 경제 전체가 그 심장 박동을 함께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AI 기업의 가치와 억만장자의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도심 공실, 중산층 이탈, 기술 고용 감소, 재정 적자는 여전히 샌프란시스코의 현실이다. AI 수도의 미래는 밝기보다, 샌프란시스코 특유의 안개처럼 여전히 흐릿하다.

editor@bostonkorea.com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6년도 장학생 모집

내일을 이끌 미래의 주역들을 찾습니다

선발대상 한국인 유학생, 한국계 미국인, 1.5세, 2세 및 입양자로서
학업성과 리더십이 출중하고 한국 전통 유산을 존중하는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고교 11·12학년 학생
*뉴잉글랜드 거주자

장학금액 \$2000-3000

지원방법 온라인 제출 (신청 양식: www.snuaane.org)

마감일자 5월20일

For detailed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ms,
please visit our website: www.snuaane.org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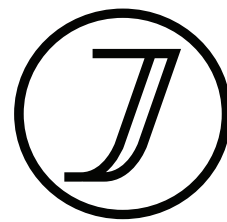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미 국방장관 부인 입은 드레스가 중국산?...온라인서 갑론을박

헤그세스 부인, 42달러짜리 중국산 추정 드레스 입고 기자단 만찬 참석



백악관 기자단 만찬행사 참석한 미 국방장관 부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부인이 최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에 입고 온 의상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30일 가디언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의 부인 제니퍼 로세는 지난 25일 백악관이 워싱턴DC 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

로세는 몸에 붙는 분홍색의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이 의상은 중국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

인 쉬인(SHEIN)의 제품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 제품은 현재 쉬인 온라인몰에서는 42달러(약 6만 2천원)에,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서는 그 절반 정도 되는 가격에 시판되고 있다.

평소 중국에 적대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출해온 헤그세스 장관의 배우자가 중국 제품 보이는 의상을 입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정치·패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패션 인플루언서 엘라 데비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헤그세스의 아내가 테무에서 산 드레스를 입고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 참석했다(농담이 아니다)"고 쓴 게시물은 600만회 이상 읽혔다.

온라인 패션지 다이어트 프라다도 SNS에서 "헤그세스의 부인이 자기 정파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다르게 외국의 패스트패션 제품을 입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로세가 값비싼 명품도 아니고 중저가의 대중적인 브랜드를 택한 게 왜 문제냐는 반론도 많았다.

특히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는 로세를 적극적으로 두둔했다.

그는 SNS에서 "그녀는 정말 멋져 보인다. 좌파들은 부자들을 물어뜯는 것 아니었나? 이제 딱 한번 입을 1만달러짜리 드레스를 사 입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려고?"라고 비꼬았다.

보수 성향이 뚜렷한 방송사인 폭

스뉴스 총괄 프로듀서 출신인 제니퍼 로세는 이혼 이력이 두 차례 있는 헤그세스 장관의 세 번째 아내다.

로세는 폭스뉴스의 주말 진행자였던 헤그세스 장관과 혼외관계로 임신한 뒤 딸을 낳았고, 두 사람은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뒤 2019년에 결혼했다.

yonglae@yna.co.kr

"사진 한 장 넣었을 뿐인데"...챗GPT 이미지 20 흥행 조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모델인 챗GPT 이미지 2.0이 출시돼 첫 주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는 지난 26일 기준 챗GPT 이미지 2.0 일일활성이용자(DAU) 수가 전주 대비 60% 이상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신규 이용자 유입은 130% 이상 급증했다.

챗GPT 이미지 2.0은 사용자 지시를 정밀하게 반영하고 이미지 내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글·일본어·중국어 등 비라틴 계열 언어의 텍스트 렌더링 정확도가 개선되면서 기존 이미지 생성 AI에서 지적돼온 '글자 깨짐' 문제가 크게 줄었다.

오픈AI는 또 최근 24시간 기준 한국 이용자들의 이미지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존 사진을 기반으로 스타일과 콘셉트를 바꾸는 변환용 활용이 주를 이뤘다.

가장 많이 사용된 프롬프트로는 "이 사진을 고급 패션 스튜디오 화보처럼 바꿔줘. 피부 톤이 잘 살아나게 배경도 어울리게 바꿔줘"가 꼽혔다.

이어 "이 사진을 요즘 유행하는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줘", "사진 속 인물을 귀여운 미니미 캐릭터처럼 만들어줘", "이 사진을 활용해서 짧은 코믹 스트립을 만들어줘" 등도 자주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브리엘 고 오픈AI 챗GPT 이미지 2.0 리드 리서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이용자들이 매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활용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종종 우리가 아니라 사용자들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cbuilt@yna.co.kr

좋은사람들
www.gunye.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토안보부 '두달반 섯다운' 종료 수순...예산안 의회 통과

트럼프, 의회에서 넘어오는대로 서명할듯...ICE에는 별도 자금지원 추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국토안보부가 76일간 이어진 섯다운(일부 기능정지)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미 연방하원은 30일(현지시간) 국 토안보부에 대한 오는 9월 30일까지 의 임시예산안(CR)을 가결했다.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을 외치는 구두 표결로 이뤄졌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앞서 연방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문구 조정을 거친 뒤 백악관으로 이송된다.



미 연방의회 의사당

앞서 상원은 3월 27일 비쟁점 대상인 교통안전청(TSA)·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FEMA)·비밀경호국(SS)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쟁점이 됐던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세관국경보호국(CBP) 산하 국경순찰대의 예산까지 모두 포함돼야 한다면서 반대해 이 예산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은 여전히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들 기관은 별도로 지원하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동의했다.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두 기관에 700억달러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별도 예산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산안 통과는 상원 전체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해 현재 53석인 공화당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과반만 확보해도 통과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 장은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민 단속과 국경의 두 핵심 기관이 완전히 자금 지원을 받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하고, 공화당이 그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예산조정 절차를 거친 ICE 및 국경순찰대 예산안의 경우 6월 1일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상태다. 국토안보부는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시민 2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촉발돼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난 2월 14일 섯다운이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43일간 중단되는 역대 최장기간의 섯다운이 있었는데, 국토안보부는 비록 개별 부처 차원이지만 이 기록을 갈아치운 셈이 됐다. 섯다운 장기화로 급여를 받지 못한 TSA 직원들의 공백 탓에 전국 공항에서 '보안 검색 대란'이 빚어졌고, 크리스티 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료 중 처음 경질되기도 했다.

zheng@yna.co.kr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매사추세츠 경찰, ICE와 협력 중... "주 차원 제한 강화" 목소리

프로텍트법안 하원 통과 후 상원 처리 주목
작년 법원 내 ICE 체포 614건, 전년의 두 배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법 집행 기관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사이의 협력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가 4월 27일 공개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 경찰과 ICE 사이에 적지 않은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스턴 소재 청소년사법시민단체(Citizens for Juvenile Justice)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매사추세츠 전역의 법 집행 기관에 90건이 넘는 정보 공개 청구를 보내, 각 기관이 ICE와 어떤 정책을 운영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수집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스턴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를 작성한 단체는 지역 및 주(州) 공무원이 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범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 자동차 번호판 인식 장치(license plate readers), 안면인식 기술, 경찰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이민 단속에 활용돼 온 감시 도구에 대한 추가 규제도 요구했다.

청소년사법시민단체의 조슈아 덴코프 디렉터는 보스턴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블루스테이트이지만, 그것이 우리 정책과 관행이 경찰의 협조를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가 표방하는 가치를 실제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의 여러 카운티 보안관실(Sheriff)은 자신들이 구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법정 출석 일정과 보석 결정 정보를 정기적으로 ICE와 공유해 왔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 법원에서 이민 단속 체포가 상당수 발생했다. 또 누구든 체포돼 지문이 채취되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연방수사국(FBI) 데이터베이스에 갱신되는데, ICE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이 있다. 보고서는 경범죄나 청소년 체포도 마찬가지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는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단절시키며 우리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법 집행과 연방 단속 기구 사이에 분명한 차단막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사추세츠에는 이미 일정한 보호 장치가 존재한다. 보스턴은 2014년 처음 통과된 '트러스트액트(Trust Act)'는 보스턴시 경찰이 연방 민사 이민 구금 요청만으로 합법적 석방 시한 이후 이민자를 추가 구금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다만 인신매매, 마약·무기 밀매, 아동 착취, 사이버 범죄 등 중대 범죄와 연관된 경우에는 협력이 가능하다. 보스턴 시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앞둔 2024년 12월 만장일치로 이 법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미국 법

〈전체 기사 읽기〉

무부는 이 같은 보스턴의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연방 이민 집행을 방해한다며 보스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차원에서는 2017년 매사추세츠 대법원의 '문 판결'에 따라 ICE가 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지역 경찰이 이민 당국을 대신해 사람을 구금할 수 없다. 강제 추방 명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민 집행은 형사가 아닌 민사 성격이다.

덴코프 디렉터는 주 의회가 이 문제를 법으로 직접 다루야 하며, 현재 논의 중인 프로텍트(PROTECT) 법안이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하원은 지난 3월 25일 프로텍트 법안을 134대 21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 안에서의 무영장 민사 이민 체포 금지. 판사·치안판사가 발부한 사법 영장이 없는 한, ICE가 매사추세츠 주 법원에서 민사 사유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다. 둘째, 이민 신분 질문 제한. 지역·주 경찰은 형사 사건과 직접 관련된 '구체적이고 사건별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사람들의 이민 신분이나 시민권 여부를 묻지 못한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도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없다. 셋째, ICE와의 정보 공유 제한. 지역·주 경찰은 매사추세츠 구금 시설에 있는 사람의 석방 정보 등 신상 정보를 ICE에 먼저 연락해 공유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신규 287 협약 금지. 287 협약은 지역 보안관 등이 ICE를 대신해 이민 집행에 협력하도록 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협약 체결을 제한한다. 다섯째, I-9 고용 검증 사전 통보 의무화. 사용자 ICE로부터 I-9 고용 자격 검증 양식 검사 통보를 받으면 직원에게 48시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매사추세츠 재판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매사추세츠 주법원 안에서 발생한 ICE 체포는 최소 614건으로, 2024년 282건의 두 배가 넘었다. 2026년 들어서도 1·2월 두 달 동안에만 137건이 추가로 기록됐다.

법안은 현재 매사추세츠 상원으로 넘어가 있으며, 상원 다수당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추가 조항을 더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덴코프 국장은 "ICE는 헌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상적 치안 활동의 범주를 벗

어나 활동하고 있다"며 "주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세울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매사추세츠 민주당 다수 주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단속 전술에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이에 의회는 이민이 본질적으로 연방 정부 관할 영역이라 주(州)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주정부가 해야 하는 조치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원, 경찰, 보안관실, 감시기술, 데이터베이스 공유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지 않으면 매사추세츠의 이민자 보호 정책은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팬데믹 때 비싸게 산 차, 미국 소비자 '부채 함정'으로 돌아왔다

차량 가치보다 대출 잔액 큰 소비자 늘어... 신차 대출 부담도 사상 최고 수준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 팬데믹 기간 치솟은 자동차 가격이 이제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채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당시 공급 부족 속에 비싼 가격으로 차량을 산 소비자들이 새 차로 갈아타려 할 때, 기존 차량 가치보다 남은 대출금이 더 큰 이른바 '네거티브 에퀴티' 상황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존 차량을 팔고 새 차를 사려는 소비자 가운데 약 30%가 차량 가치보다 대출 잔액이 더 많은 상태였다. 자동차 구매 정보 업체 에드먼즈(Edmunds)에 따르면 이들이 떠안은 평균 초과 대출액은 약 7,200달러로, 5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오하이오주 북동부의 한 메르세

데스-벤츠 딜러는 최근 포드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트럭을 메르세데스 GLE 쿠페로 바꾸려던 고객 사례를 전했다. 이 고객은 픽업트럭 대출금으로 약 8만7천 달러를 아직 갚아야 했지만, 차량 가치는 약 4만7천 달러에 그쳤다. 단순 계산으로 약 4만 달러가 물린 셈이다.

문제는 이런 부채가 새 차 대출로 다시 넘어간다는 점이다. 기존 차량의 손실분을 새 차 대출에 얹으면, 소비자는 더 큰 원금과 더 긴 상환 기간을 떠안게 된다. 에드먼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차 평균 대출 기간은 70개월에 달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월 납입금을 낮추기 위해 84개월, 즉 7년짜리 대출까지 선택하고 있다.

특히 네거티브 에퀴티를 안고

신차를 산 소비자들은 올해 1분기 평균 약 5만6천 달러를 대출로 조달했다. 이는 일반 신차 구매자보다 약 1만2천 달러 많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월 납입액은 932달러로, 관련 통계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의 출발점은 팬데믹 시기 반도체 부족 사태였다. 당시 신차 공급이 급감하면서 딜러 재고가 줄었고, 차량 가격은 급등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동 수단이 필요하거나 가치분 소득이 늘어난 상황에서 웃돈을 주고 차를 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중고차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당시 비싸게 산 차량의 현재 가치가 대출 잔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 가격

상승과 고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이전 차량의 네거티브 에퀴티를 새 대출로 갚긴 소비자는 차량을 팔 때 오히려 돈을 남긴 소비자보다 2년 안에 차량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대출 연체도 늘고 있다. 자동차 산업 조사기관 콕스 오토모티브(Cox Automotive)에 따르면 3월 자동차 대출 디폴트율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팬데믹 때의 가격 거품, 고금리, 긴 대출 기간이 한꺼번에 소비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모든 소비자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 JD파워(JD Power)는 지난 3월 차량을 바꾸는

〈전체 기사 읽기〉

소비자의 평균 트레이드인 에퀴티가 6,800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즉 일부 소비자는 여전히 차량을 팔 때 자산 가치가 남아 있지만, 팬데믹 고점에 비싼 차를 장기 대출로 산 소비자들은 반대로 부채의 늪에 갇히고 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현재 상황은 이른바 'K자형 경제'의 또 다른 단면으로 읽힌다. 여유 있는 소비자들은 높은 차량 가격과 금리에도 새 차를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은 기존 대출을 정리하지 못한 채 더 큰 빚으로 갈아타는 구조에 놓이고 있다.

자동차 가격 거품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때 만들어진 대출 부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팬데믹 시기의 비싼 차값이 이제는 미국 가계의 장기 부채 문제로 남고 있다.

hsb@bostonkorea.com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MAY 1st - MAY 7th, 2026

 Follow us @hmartofficial



MISO CARBONARA UDON

Creamy, savory, with that cozy umami kick that hits just right. Perfection in every swirl. quick ingredients. big flavor!

크리미하게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맛. 미소 까르로나라 우동을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신 선 한 정 육 M E A T at unbeatable low prices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SMART CARD MEMBER ONLY**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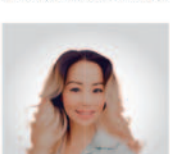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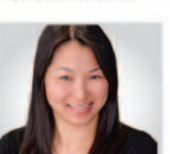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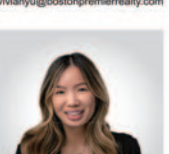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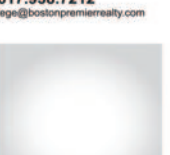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송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	--	---	---	--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EJ Kim 617.388.7652 ejkim@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91 nikkipark@gmail.com	 피터 주 617.780.7839 thepeteringteam@gmail.com	 지나 최 978.866.3248 thepeteringteam@gmail.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0921@gmail.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정 617.455.7710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wang1@gmail.com	 마사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손창배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choi052@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99.1214 hwa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17.515.1162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메건 리 404.641.5102 mega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gmail.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	 Vivian Yu 617.935.2713 viv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yu2022@gmail.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box@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빈센트 박 201.446.8595 vincent@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Mimi Belanger 413.237.1586 mimiy111@hotmail.com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www.premierworkspro.com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자임을
선언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문수사에서는 자비와 지혜의 빛을 나누는
법회를 봉행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한 인연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장소 : 231 Salem St. Wakefield, MA 01880

문의 : 781) 224-0670



봉축위원회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APR. 30TH - MAY 7TH, 2026



OLD SCHOOL SOONDAE
Korean Style Links
토종순대

1.5 LB/PKG **LIMIT 2**

\$7.99



ORION

Sweet & Spicy Swicy 2 Mix

오리온 스와이시 스낵

**O! TUBE(SWEET CHILLI)
+TURTLE CHIPS (KOREAN STYLE CHICKEN)**

\$8.99

LIMIT 2

**26.52 OZ
(14 PACKS/BOX)**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무가치함과 싸우는 구교환..."오늘의 실패, 당신의 것만은 아냐"

(서울=연합뉴스) 장진리 기자 =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늘의 좌절, 실패, 부끄러움, 자괴감이 너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속상했던 것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내일을 살면 웃고 떠들 날이 있을 거야. 우리 모두 그렇게 산단다'라는 작은 위로를 건네는 작품입니다."

차영훈 PD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JTBC 새 토일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이하 모자무싸) 제작발표회에서 시원한 사이드 성공담 대신 따뜻한 위로와 공감 이 있는 드라마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18일 오후 10시 40분 첫선을 보이는 '모자무싸'는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리는 인생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한 인간이 평화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연출은 '동백꽃 필 무렵', '웰컴 투 삼달리'를 만든 차영훈 PD가, 극본은 '또 오해영',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등으로 인간의 심연을 포착하는 글을 써 온 박해영 작가가 맡았다.

연예계에서 '캐스팅 0순위'로 불리며 가치를 인정받은 배우 구교환은 20년간 영화 감독 데뷔를 준비하며 시기, 질투, 열등감 속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황동만을 연기한다.

그는 "대본을 읽고 '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며 "동만이는 누군가의 친구, 가족, 연인, 연출자다. 이 드라마는 황동만 입봉(감독 데뷔)기가 아니다. 영화판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엄청난 맥거핀이고 당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동만과 헤어지기 힘들다는 구교환은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 기분이다. 캐릭터와 이별한다는 말이 징그러운데, 동만이만큼은 보내기 어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며 "황동만이 어딘가 있다면 동만이와 영화를 꼭 찍고 싶다"고 애정을 보였다.

'무빙',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이 사랑 통역 되나요?' 등 화제작엔 꼭 있는 배우라 불리는 고윤정은 불안과 두려움을 겪을 때마다 코피를 쏟는 증상이 있는 영화사 최필름 소속 기획 PD 변은아를 연기한다.

고윤정은 "동만 역과 구교환 선배님의 싱크로율이 높아서 자연스럽게 의지가 됐다"며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무색할 만큼 선배님이 새로운 리액션을 하게 만들어주셨다. 장면마다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왔다"고 구교환과 좋았던 호흡을 자랑했다.

이외에도 오정세가 영화사 고박필름 소속 감독 박경세, 강말금이 박경세의 아내이자 고박필름 대표 고혜진, 박해준이 황동만의 형 황진만, 한선화가 박경세의 다섯 번째

영화 여주인공 장미란으로 출연한다.

배우들은 '모자무싸'의 매력으로 박해영 작가의 말맛과 울림이 있는 대본을 꼽았다.

박해영 작가의 전작이 밀도 높은 대사로 사랑받은 것처럼 '모자무싸' 역시 "내 인생이 왜 네 맘에 들어야 되는데요?"라는 포스터 속 대사가 일찌감치 화제다.

박해준은 "대사 중 '돈 많고 뻥 있는 엄마가 아니라 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말이 있는데 공감이 갔다. 각자 본인한테 마음이 닿는 대사를 얻어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윤정 역시 "명대사가 많은데 각자 꽃필만한 대사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대사가 떠오른다. 저도 사실 목적 없이 사는 것 같아서 제게도 한번 던져 봤던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모자무싸'는 아이유·변우석 주연의 MBC 금토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유연석 주연의 SBS 금토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 무소'와 맞붙게 된다.

완전히 같은 시간대는 아니지만, 토요일 30~40분 정도의 방송 시간이 겹친다.

차 PD는 "저희 대사에 있는 표현인데 마음이 불탄 위에 있는 것 같다. 다 잘못된 것 같고, '첫 촬영을 했던 지난해 10월 19일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크다"고 웃음 지었다.

이어 "얼기설기 겹쳐서 방송되는 여러 작품 다 좋고 재밌는 작품들이라 저희가 꼭 1등하고 싶다"고 말할 만큼 자신은 없지만 바람과 욕심은 있다"고 말했다.

배우들은 작품성과 시청률을 모두 자신했다.

구교환은 "전 아무리 좋은 메시지, 깊은 울림을 주더라도 재밌지 않으면 못 버틴다. 그런데 제가 자신한다. 재밌고, 감동적이고, 웃긴다. 재밌게 보시라. 자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박해준은 자신이 출연해 28.4%로 비지상과 최고 시청률을 썼던 '부부의 세계'를 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제 자랑이긴 한데 JTBC 역대 시청률 1위가 아직도 '부부의 세계'라며 "이번 작품을 통해 JTBC의 최고 시청률을 넘어보자는 목표"라고 했다.

'모자무싸'는 "우리는 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는 메시지로 나아간다.

차 PD는 "주인공이 시원하게 깨부수는 위로도 있지만, '우리 다 마찬가지야'라고 하는 위로도 있다"며 "드라마가 끝나면 나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드라마였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ari@yna.co.kr

Boston K-Peace Culture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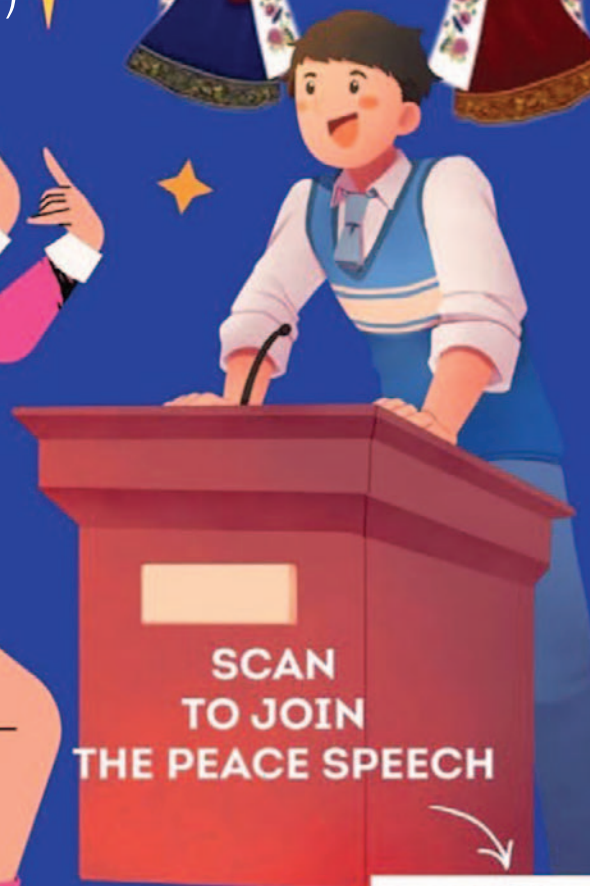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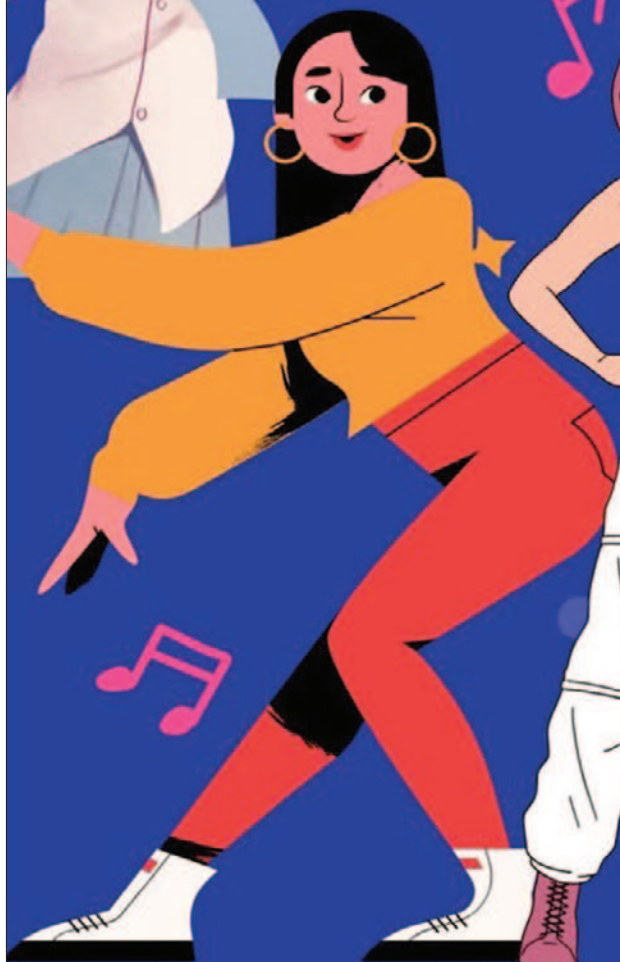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보스턴 K-평화 문화축제

일시: 2026년 5월 9일(토) • 오후 2시 - 4시
장소: 보스턴 트리니티 교회 앞 코플리 스퀘어(Copley Square)
우천시, 730 Main St. Waltham, MA

주요 프로그램

- 문화공연
Baker School 부채춤/K-Pop 댄스
Northeastern University K-Pop 댄스
Didim Chum Dance Company 태평무
아리랑과 닐리리야 난타 공연
- 한반도 평화 메시지 전시 및 시민 참여 활동
- 청소년 1분 평화 스피치 (모든 학년 참여 가능)



2026년 이만생활을 담당하게 다들 새로운 칼럼을 소개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거주하는 필자는 이만생활에서 겪는 일상과 애환을 수필형식으로 독자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편집자주]

이혜준(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junhey2026@gmail.com

[인류연재] 배드민턴과 손절

지난해 어느 날 저녁, 매주 목요일 밤마다 배드민턴을 치러 다녀도 되겠냐고 남편이 내게 물었다. 한 동네에 사는 이전 직장 동료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다가 그분의 취미인 배드민턴에 영업당한 것이다. 매일 집 밖을 나가 30분 이상씩 달리고 토요일 동네 조기 축구를 뛰러 나다니는 걸로도 모자라 애는 도대체 왜 이지경으로 중년의 위기일까. 유명한 얼굴로 봄비는 텔레비전 앞에 누워 남편의 체력을 걱정하는 마음과 그 무모함을 구박하는 마음을 다 합쳐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언제나 네 한계를 보기까지 응원하므로 그러려무나.”

누군가 자신의 취미 생활에 대해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는데 속엿는 사람처럼 이 말저 말 늘어놓아가며 한번 동참해 보기를 권할 때가 있다. 나이 든 우리는 이제 그 수다를 ‘내 일상에 당신을 포함하고 싶다’는 초대로 순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로 친구가 필요한 순간마다 따로 시간을 내어 그 누구와도 평소와는 다른 차원의 우정을 키워나갈 여유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와 달리 서로에게 개인적으로 약속을 상기시키지 않아



도 일정한 회비로 보장된 시간과 공간에 나타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친구인 것이다.

한동안 남편은 목요일 밤이면 동네 중국 아줌마들한테 셔틀콕으로 실컷 쳐맞고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집에 기어 들어왔다. 그 어느 실력자도 남편과 같은 편이 되면 치욕적인 패배만을 겪는다고 했다. 그와 배드민턴을 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남편은 매주 내게 칭얼대며 보고했다. 심지어 그를 동네 체육관으로 끌어들이던 이전 직장동료마저도 남편과 배드민턴 치기

를 꺼린다는 것이다. 취미 생활에도 실력에 따라 엄연한 계급이 존재해 남편은 그중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허공에다 배드민턴 채를 속절없이 휘둘러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무룩해져만 가는 그의 얼굴은 나 혼자 보기 아깝도록 비극적이었다. 그 탓에 동네 체육관에 남편 대신 나타나 술 취한 무사처럼 배드민턴 채를 뽑아 들고 주어진 모든 규칙을 배반하며 코트 위를 날뛰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했다.

축구하러 나가면 젊은 시절 대학팀 선수

로 뛰었던 아줌마나 아저씨한테 치이고, 달리는 동안에는 어제저녁 과식한 제육볶음이 걸림돌이고, 우리에게겐 이러한 생의 무자비만이 영원한 친구임을 또다시 실감하며 남편은 미련 없이 배드민턴을 때려치웠다. 남편의 이전 직장 동료 역시 떠나는 남편을 그 어떤 말로도 붙잡아 세우지 않았다. 과연 남편의 빛나던 배드민턴채가 이 둘 사이에 종종 놓이던 손가락 젓가락까지 안 보이게 치워버린 건 아닌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문제성 도박 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2026년도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2026 NE DRAWING CONTEST



일시 및 장소: 2026년 5월 23일(토) 오후 2시부터 오크힐 파크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오후 2시 (접수) ~ 5시 30분 (시상식 포함)
- 신청 및 마감: **5월 17일 (일) 마감**
- 참가비/1인: \$10 (회원 한국학교 학생)/등록 마감 후: \$15
- 참가비 보내실 주소:
참가비는 각 학교 대표자가 참가비 총액을 아래의 주소로 발송
(수표는 KSA-NE 로 작성)

Sang Kang

P.O. Box 337

Billerica, MA 01821



<https://forms.gle/ZnE3Wya5Ti2mzkzC8>

<1> 참가자격: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재학생 (Pre-Kinder~11학년)

<2> 참가부문: 크레용, 색연필, 그림물감 등 자유롭게 선택
(유화 제외/콜라주 제외 - 풀, 가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입체 작품제출 불가)

<3> 시상 및 심사위원: Pre Kinder부터 11학년까지의 학년 별 시상

- 1.Pre-Kinder는 참가자 전원 시상
- 2.K-11학년: 각 그룹 별로 대상, 금, 은, 동, 입선상
- 3.감독/심사 위원: 미술 전공한 분으로 회원교에서 추천한 교사
- 4.그림 주제는 당일 선택하여 알림

<4> 준비물 및 협조 부탁 (물감, 크레용 사용이 가능한 종이는 협의회에서 준비)

- 1.물감, 크레용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재료를 준비 합니다.
- 2.야외에서 진행시 보드 또는 이젤 및 돛자리(또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5> 각 학생/가족 별로 준비할 사항

: 기본 구급용품과 선크림·모자·모기약을 준비하고, 공원에서는 취사(그릴·불 사용)가 금지되므로, 간식은 각 가정에서 준비하며 쓰레기는 행사 후 직접 수거합니다.

<6> 행사 당일 또는 전날 비가 많이 오거나, 더위가 심한 경우 학교 내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가 신청자에 한해, 신청 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 2:00-2:30 접수
- 2:30-3:00 개회식 및 주제 선정
- 3:00-3:10 대회장소 이동
- 3:10-4:10 대회
- 4:10-4:40 심사
- 4:40-5:30 시상식 및 폐회



주최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후원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교장단 및 이사회

보스톤 **코리아**



'웹툰 흥행 공식'의 반전...드라마→웹툰·웹소설로 역방향 확장

(서울=연합뉴스) 고기해 기자 = 지난 수년간 K-드라마 시장에서 인기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흥행의 '보증수표'로 통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흐름이 달라진 모습이다. 신인 작가들의 참신한 필력이 돋보이는 '창작극본' 드라마들이 잇따라 흥행하면서,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웹툰·웹소설이 제작되는 '역방향' 지식재산권(IP) 확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방송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큰 주목을 받은 드라마나 시리즈 중에는 기존 인기 IP나 스타 작가의 대작이 아닌, 신인 작가의 창작극본에서 출발한 작품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국내외에서 '올해의 최대 기대작'으로 꼽힌 아이유·변우석 주연의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은 2022년 'MBC 드라마극본공모전' 당선자인 유지원 작가의 데뷔작이다. KBS '은애하는 도적남아' 역시 2020년 이선 작가가 스튜디오프래곤 드라마극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극본을 토대로 제작됐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상반기 공개된 '레이디 두아'(추송연 작가), '월간남친'(남궁도영 작가) 등도 신인 작가들의 손에서 탄생한 순수 창작극본들이다.

이 작품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거둔 흥행 성적은 고무적이다. '월간남친'과 '레이디 두아'는 공개와 동시에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글로벌 1위를 차지했고, '21세기 대군부인'은 방영 2주차에 시청률이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11.1%를 돌파하며 높은 화제성을 입증했다.

이들은 신인 작가의 작품임에도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되고 화려한 캐스팅을 선보이며, 스타 작가와 기존 IP에만 의존하던 업계의 관행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김현식 문화평론가는 "기존 웹소설·웹툰 기반 드라마는 조희수로 (화제성이) 검증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상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다"며 "10여년 전 판권을 구매해 실사화하는 경우 벌어진 '시차'로 인해 지금 보기엔 시대와 감성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원작

을 그대로 고증하는 것도 위험부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인 작가의 공모극본 작품이 성공하게 되면 방송사나 OTT 입장에서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의 작품을 발굴하고, 창작자 입장에서 또 다른 신진 작가의 등용문을 열어주는 새로운 선순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히정 드라마평론가 역시 "요즘은 신인 작가가 데뷔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굉장히 좁아졌다"며 "업계에서 훌륭한 창작력을 지닌 신인 작가들의 작품들에 좀 더 투자해 심도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런 작품들의 성공을 통해 또 다른 신인 작가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창작극본의 성공은 단순히 흥행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웹툰·웹소설이 영상물의 주재료였다면, 이제는 흥행한 드라마가 웹툰과 웹소설의 원천 IP가 되는 '역방향 흐름'이 안착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21세기 대군부인' 유지원 작가는 드라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웹소설 '21세기 대군부인 in 왕립학교'를 내달 카오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드라마 종영 시점에 맞춰 웹소설을 공개함으로써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애하는 도적남아'의 경우 방영 일주일 전 네이버 웹툰을 선 공개하며 드라마를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해 우리는', '킹더랜드' 등 다양한 인기 드라마를 소재로 웹툰·웹소설이 만들어졌다. IP 확장 방식도 다양하다. 드라마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디테일한 서사를 추가하거나, 프리퀄(시간상 앞선 이야기)이나 시퀄(후속 이야기) 등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방식 등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작품의 세계관을 깊이 있게 즐길 창구를 팬들에게 제공하고, 콘텐츠 업계에는 IP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된다고 보고 있다.



5월 3일 - 5월 9일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가랑비에 옷 젖듯이 ● 운수: 너무 먼 미래까지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코앞에 일에만 신경 쓰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 금전: 자기 조절력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기는 후회만 남기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 애정: 외로움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겠습니까. 96, 84, 72, 60, 48, 36년생은 3, 6일 길일, 5, 8일 주의.	소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을 ● 운수: 후회한들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일은 이제 그만 손에서 놓아버리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하세요. ● 금전: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갈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금방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게 계산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간에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3, 7일 길일, 6, 9일 주의.	범띠 겸손하게 처신해야 ● 운수: 힘들 때에는 도움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가 오면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 금전: 아는 척이나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처신해야 사람을 얻고 이득도 따릅니다. ● 애정: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모르게 드는 정이 더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5, 8일 길일, 4, 7일 주의.
토끼띠 수월하게 진행될 ● 운수: 이동이나 변화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계약이나 매매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던 일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속상했던 것을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4, 9일 길일, 6, 8일 주의.	용띠 원하는 방향으로 ● 운수: 드디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돈까지 들어오면서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큰 무리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문득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4, 7일 길일, 3, 5일 주의.	뱀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 운수: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용하면 진짜 아플 때에 써도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금은 당장 크게 돌아오는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애정: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로 인해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7, 9일 길일, 4, 8일 주의.
말띠 큰 행복감을 줄 ● 운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힐링도 될 것입니다. ● 금전: 직원이 고객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직원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 애정: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02, 90, 78, 66, 54, 42년생은 4, 9일 길일, 3, 5일 주의.	양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 운수: 잘못된 상식으로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금전: 당장 큰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매상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 애정: 좋은 관계는 자신에게 묘약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독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연인은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5, 7일 길일, 4, 6일 주의.	원숭이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자가 ● 운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 금전: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믿음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 애정: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배우자나 연인에게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6, 9일 길일, 4, 7일 주의.
닭띠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 운수: 주위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금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 애정: 편안해집니다. 아직은 특별한 사이가 아닌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털어놓게 됩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6, 7일 길일, 5, 8일 주의.	개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 운수: 가벼운 해프닝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을 두고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 금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돈 버는 기회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애정: 너무 완벽한 것도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4, 5일 길일, 6, 9일 주의.	돼지띠 그저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 ● 운수: 불필요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전: 그저 믿고 맡긴다는 마음으로 남에게 돈을 맡기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돈을 앞에 두고 욕심 내지 않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애정: 감정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거나 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나아질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

동방신기 · 에스파 · 트와이스...日 도쿄에 K팝 팬 40만 이상 집결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일본의 수도 도쿄가 K팝의 열기에 휩싸인다.

2~4세대 정상급 K팝 스타들이 이번 주말과 내주 초반 도쿄 주요 대형 공연장에서 동시다발로 콘서트를 열면서 40만명이 넘는 팬들이 모일 전망이다.

25일 가요계에 따르면 2세대 대표 보이그룹 동방신기는 이날과 26일 이틀에 걸쳐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공연장 가운데 하나인 닛산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현지 팬들을 만난다.

닛산 스타디움은 회당 최대 7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현지에서도 손에 꼽히는 톱스타만 단독 콘서트를 열 수 있다.

동방신기는 2013년 해외 가수 최초로 닛산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2018년에는 같은 장소에서 3일간 공연을 했다. 타국 출신은 물론 일본 가수까지 포함해도 닛산 스타디움에서 사흘에 걸쳐 무대에 선 것은 동방신기가 처음이었다.

이들은 세 번째가 되는 이번 닛산 스타디움 공연으로 해외 가수 최초로 더해 최다 기록까지 세우게 됐다.

K팝 아이돌 3세대를 이끈 걸그룹 트와이스는 이날을 비롯해 26·28일 총 3회에 걸쳐 닛산 스타디움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초대형 공연장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해외 가수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연다.

트와이스는 지난 2018~2020년 홀과 아레나급 공연장에서 일본 콘서트를 연 이래 2022년 도쿄 돔에서 3일 연속 공연을 한 최초의 K팝 걸그룹이 됐다. 이들은 2023년 오사카 안파 스타디움 나카이,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나고야 반테린 돔, 후쿠오카 페이페이 돔에 이어 2024년에는 닛산 스타디움에 K팝 걸그룹 최초로 입성할 바 있다.

도쿄 국립경기장은 회당 최대 8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트와이스는 360도 개방형 무대로 몰입감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이 밖에 4세대 대표 걸그룹 에스파는 이



날과 26일 이틀에 걸쳐 일본내 '꿈의 공연장'으로 꼽히는 도쿄 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K팝 시장에 밴드 붐을 지낸 데이식스도 같은 기간 도쿄 게이오 아레나에서 팬들을 만난다.

이들 네 팀의 콘서트 관객을 모두 더하면 무대 설치에 따른 객석 구역 감소를 고려하

더라도 최소 40만명을 넘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지방 거점 도시 1곳의 인구와 맞먹는 규모의 인파가 K팝 공연을 찾는다는 이야기다.

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교수는 "일본은 K팝에 있어서 여전히 아주 중요한 시장"이라며 "일

본 팬들은 한번 어떤 대상에 빠지면 앞뒤를 재지 않고 오래도록 이를 향유하는 순애보 같은 측면이 있다. 양국 관계가 민감한 시기가 와도 정치와 문화를 분리해서 (K팝) 소비를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하정우는 전두환 · 손석구는 노태우...영화 '보통 사람들' 출연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배우 하정우와 손석구가 윤종빈 감독의 신작 영화 '보통 사람들'에 출연한다.

넷플릭스는 윤 감독의 '보통 사람들' 제작을 확정하고 27일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보통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자 전두환의 곁에서 보통 사람이란 가면을 쓴 채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려는 2인자 노태우의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와 드라마 '수리남'(2022) 등을 만든 윤종빈 감독이 각본을 썼고 연출도 맡는다. 윤 감독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민낯을 파헤치고 생존에 나선 인간 군

상을 그려낼 계획이다.

하정우가 신군부 독재 정권의 절대자 전두환 역을 맡는다. 그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2005)부터 시리즈 '수리남'까지 여러 번 호흡을 맞춘 윤 감독의 페르소나로 꼽힌다.

손석구가 전두환의 친구이자 만년 2인자 노태우 역으로 출연한다. 그는 2인자에서 1인자로 올라가기까지 복잡 미묘한 내면을 연기할 예정이다.

지창욱은 극중 노태우가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육군사관학교 후배 허학성 역을 맡는다. 시리즈 '살인자 이난감'의 현봉식, 영화 '84제곱미터'의 서현우도 함께한다.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encounter24@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태도'가 좋아야 걸음도 목소리도 좋아진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18-19)

사람의 태도는 숨길 수 없다. 마음속 생각과 감정은 결국 걸음걸이와 목소리로 나타난다. 마음이 무거우면 걸음이 무거워진다. 불평이 가득하면 목소리가 거칠어진다. 감사가 넘치면 걸음이 가벼워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황혼기, 곧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의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하박국서를 깊이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정치, 사회, 영적, 국제정세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학자들은 하박국이 주전 612년-605년 사이, 혹은 요시아왕 말기부터 여호야김 시대 초반에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남유다만 남아 있고, 앗수르 제국이 몰

락 중에 있었다.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 하였으며, 애굽도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다. 유다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흔들리는 시기였다. 즉, 세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던 시대였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한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환경은 어두웠지만, 태도는 무너지지 않았다. 상황은 흔들렸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좋은 태도’가 어떻게 우리의 걸음과 목소리를 바꾸는가 함께 나눠본다.

좋은 태도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하박국 당시 심판을 앞두고 있었다.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안전도 무너졌다. 그러나 하박국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문제를 보면 두려워한다. 사람을 보

면 실망한다. 자신만 보면 낙심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소망한다. 믿음의 태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좋은 태도는 걸음을 바꾼다. 본문은 말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은 험한 산길도 넘어간다. 미끄러운 바위도 잘 딛는다. 빠르고 민첩하며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환경을 먼저 바꾸신 것이 아니라, 발을 바꾸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다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힘과 발걸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무너진 태도의 걸음은 미루는 걸음, 두려워 숨는 걸음, 원망하며 걷는 걸음, 포기하는 걸음이다. 믿음의 태도의 걸음은 다시 시작하는 걸음, 기도하며 걷는 걸음, 순종하며 걷는 걸음, 감사하며 걷는 걸음이다.

좋은 태도는 목소리를 바꾼다. 태도는 말투에 드러난다. 같은 말도 태도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불평의 목소리는 사람을 지치

게 한다. 분노의 목소리는 관계를 무너뜨린다. 냉소의 목소리는 믿음을 식게 한다. 그러나 은혜의 목소리는 사람을 살린다. 하박국서를 보면 처음 하박국의 목소리는 질문과 탄식이 많았다. “왜, 악인이 형통하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바뀐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문 사람의 목소리는 달라진다.

좋은 태도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한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은 승리의 자리이다. 높은 곳은 시야가 넓어지는 자리이다. 높은 곳은 성숙의 자리이다. 태도가 무너지면 낮은 생각에 갇히게 된다. 남과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높은 곳에서는 작은 문제에 매이지 않는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할렐루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42) 은퇴 자금이 반 토막 나는 이유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 여파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유가 급등, 금리 부담,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불안한 뉴스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마음도 함께 흔들린다. 주가가 오르면 늦은 것 같아 불안하고, 떨어지면 더 하락할까 두려워 망설이게 된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감정에 따라 뒤늦게 움직이게 된다. 이것이 많은 투자자가 겪는 ‘투자의 딜레마’다.

주식시장의 방향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맞힐 수 있느냐이다. 2023년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전문가가 경기 침체를 예상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상승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해 상승한 시장은 다음 해에도 상승할 확률이 약 65~70%에 이른다. “이제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직관적이지만, 실제 역사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 결국 예측은 가능해 보여도, 꾸준히 맞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많은 투자자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은 위험하니 잠시 시장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이른바 ‘마켓 타이밍’이다.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성공하려면 언제 나갈지, 언제 다시 들어올지 두 번의 결정을 모두 맞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2020년 3월 팬데믹 당시를 떠올려 보자. 시장은 급락했고 많은 투자자가 공포에 못이겨 시장을 떠났다. 그러나 시장은 3월 23일 바닥 이후 빠르게 반등했고 몇 달 만에 이전 고점을 회복했다. 많은 투자자는 불안 속에 머물다 뒤늦게 돌아왔고, 결국 가장 중요한 상승 구간을 놓쳤다.

이 사실은 데이터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2006년부터 2025년까지 S&P 500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시장에 계속 머물렀을 때 자산은 약 8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가장 좋은 10일’을 놓치면 결과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20일, 30일을 놓칠수록 수익은 급격히 감소하고, 60일을 놓치면 원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수십 년의 결과가 고작 며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시장의 가장 큰 상승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 그것도 공포가 극심한 시기에 나타난다. 실제로 최고의 상승일 상당수는 급락 직후에 집중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바로 그 순간 시장 밖에 있다. 하락 시에는 두려움에 팔고, 안정되면 들어가려 하지만 이미 가격은 올라간 뒤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훼손되는 것은 복리다. 복리는 시장에 머물러 있을 때만 작동한다. 중간에 빠져나가면 성장의 연결이 끊기고, 이후 다시 투자하더라도 놓친 상

승은 되돌릴 수 없다. 단 몇 번의 중요한 상승을 놓치는 것만으로도 장기 수익은 크게 줄어든다.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변동성이 아니라, 시장을 떠나는 행동이다. 단 하루, 몇 번의 중요한 상승을 놓치는 순간, 그 대가는 은퇴 자금의 절반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시장은 언제나 뉴스보다 먼저 움직인다. 따라서 가장 큰 위험은 잘못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순간에 시장에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본능은 위기에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은 그 반대였다.

시장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이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주식 투자는 결국 감정을 이기며 꾸준히 투자한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

가정의 달 마음에 **정** 있어요

가정의 달 행사

4월 17일 ~ 5월 17일

‘무료 배송 가능’ 
*\$300 이상 내방 구매고객 한정



JUNG KWAN JANG

에브리타임 증정	천녹류·달임액류 할인
\$250 이상 구매 시, 에브리타임 3g 10포 증정	10% 추가 할인 멤버스 ONLY 중복 적용 가능
\$350 이상 구매 시, 에브리타임 3g 20포 증정	
\$450 이상 구매 시, 에브리타임 3g 30포 증정	

***\$100 이상 구매 시, 보자기 포장 제공**
***조기 소진 시 혜택 제공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균형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음용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정관장 벌링턴 H마트 204호 (3 Old Concord Rd) 전화 : 929.600.488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5분, 치질을 좌우한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항문 출혈의 대표적인 질환인 치질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일반외과 배 병구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일상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항문 건강 측면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치질은 단순한 질환이라기보다 문명화된 생활이 만든 '압력의 함정' 과도 같다. 인류가 직립 보행을 시작하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아래로 쏠리는 구조적 한계를 갖게 되었고, 항문 정맥은 다리 정맥과 달리 역류를 막는 판막이 없어 선천적으로 혈액이 정체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치질은 치핵, 치열, 치루, 항문 농양 등을 포함하는 항문 질환의 총칭이다. 항문 안에는 혈관, 근육, 결합조직이 모여 있는 '항문 쿠션'이 있으며, 이는 배변을 조절하는 중요한 구조다. 치질은 이 쿠션에 혈액이 정체돼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르거나 아래로 탈출한 상태를 말한다.

다.

치질의 본질은 단순한 혈관 질환이 아니라 '압력 관리 실패'에 가깝다. 변비나 설사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복압을 높여 항문 정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에서도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질 위험이 46% 높았고, 5분 이상 변기에 머무는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화장실 이용 시간을 5분 내로 제한하는 '5분 원칙'을 지키고, 배변 후 즉시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항문 정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항문 출혈은 치질의 대표 증상이지만, 동시에 대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 직장 하부에 발생한 암은 치질과 동일하게 밝은 선홍색 출혈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증상자가 진단 대신, 정확한 검사를 통한 감별을 권고한다. 특히 45세 또는 50세 이상에서 이전에 없던 항문 출혈이 새롭게 생겼다면, 단순 치질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질 치료는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에

는 보존적 치료로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은 크게 전통적 치핵 절제술, 원형 자동 봉합기 수술(PPH), 도플러 유도 동맥 결찰술 등으로 나뉜다. 전통적 절제술은 재발률이 가장 낮지만 수술 후 통증이 크고 회복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PPH는 통증과 회복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보고가 있다. 동맥결찰술(DGHAL)은 조음파로 혈관을 찾아 묶는 최소 침습 방식으로, 재발률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어떤 치료를 선택 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발 위험은 남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선 화장실 이용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기에 앉아 있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불필요한 체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만성 음주는 치질을 악화 시키므로 절주가 필요하다. 술이 직접 치질을 만들기보다는, 간 기능 저하와 문맥압 상승 등을 통해 정맥 압력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악화

시키는 탓이다.

치질은 부끄러워 숨겨야 할 질환이 아니다. 오히려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생활 습관을 함께 교정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항문 질환을 단순히 '참는 병'으로 여기기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5분, 치질을 좌우한다"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세무법인
호연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STAGE
KARAOKE X STUDIOS

올스턴 스테이지 가라오케

STAGE KARAOKE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한국식 노래방,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합니다.

**THE ULTIMATE
KARAOKE
EXPERIENCE**

The Place to Create Memories!



MAIN STAGE

- 한국의 TJ 미디어, 중국산 가라오케 시스템,
- 핀란드 기반의 영어 가라오케 플랫폼 싱가 (Singa)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와 세대의 곡을 폭넓게 제공

OPEN HOURS:

Mon. - Thur. 4PM - 2AM

Sat. - Sun. 1PM - 2AM

- 12개의 프라이빗 룸과 하나의 메인 스테이징 라운지 (메인 스테이지는 60명 이상 수용)
- 프라이빗룸은 소형 6명에서 대형 30명까지 입장 가능
- 회사 회식(Team Building Event), 학교 및 대학 모임 등 2차로 최적
- 가족 행사, 생일 파티, 어린이 생일 파티도 환영
- 각종 주류 완비, 피자과 치킨 웡 등 음식 서비스



PRIVATE STUDIOS



“누구나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다.
노래는 추억을 불러오고, 세대를 잇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함께 노래하는 경험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 Henry Wong

예약: stagekaraoke.com, 617.208.8302
138 Brighton Avenue, Boston, MA 0213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음악 인재들의 명예로운 무대, MMEA 올스테이트 페스티벌 로드맵

매사추세츠는 미국 내에서도 음악 교육 수준이 매우 높기로 유명한데, 그 중심에는 전미음악교육협회인 NAfME와 그 주 지부인 MMEA가 있습니다. 흔히 접하는 지역 디스트릭트 오디션이나 올스테이트 올이스턴 페스티벌은 모두 이 기관들이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행사들입니다.

NAfME는 미국 전역의 음악교육 표준을 설정하고 전미 단위의 행사를 주관하는 모체 기관입니다. 반면, MMEA는 NAfME의 주지부로서, 우리 지역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우선 첫걸음은 지역구 단위인 주니어 디스트릭트입니다. 7학년에서 9학년 사이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9학년은 주니어와 시니어 중 선택해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니어 단계에서는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다음 상위 단계인 올스테이트로 진출할 수 없으므로 실력이 우수한 9학년 학생이라면 학교 선생님의 허락하에 시니어 디스트릭트에 응모하는 것을 권합니다.

고등학생들의 시니어 디스트릭트는 올스테이트로 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매사추세츠는 거주지에 따라 총 5개의 구역(Eastern, Northeastern, Central, Southeastern, Western)으로 나뉘어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오디션은 스케일과 지정곡, 그리고 악보를 처음 보고 연주하는 초견으로 구성되며, 심사 직후 공개되는 채점표를 통해 합격/불합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디션에서 상위권 성적을 기록해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올스테이트 오디션 자격이 주어집니다. '추천'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시니어 페스티벌에서까지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올스테이트 오디션을 통과한 학생들은 매사추세츠 전체에서 선발된 최우수 인재들로 구성되며 2박 3일간의 합숙 리허설을 거쳐 완성도 높은 올스테이트 공연을 선보입니다. 공연은 매해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개최되는데 올해는 대규모 학생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 대형 행사장과 인근 컨벤션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Worcester에서 열렸습니다. 명심하셔야 할 점은 모든 오디션은 학교 음악 선생님이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학교 음악 선생님께 의사를 밝히고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올스테이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미국 북동부 11개 주(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D.C., 또는 유럽 소재 국방부 소속 학교(DoD) 중 한 곳에서 11학년-12학년에 재학 중인 올스테이트 대표들이 모이는 올이스턴(All-Eastern) 페스티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대는 홀수해에만 열리는 격년제 행사이며 오디션 신청은 학생과 학교 음악 선생님이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마지막 정점은 미국 전체에서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이 모이는 올내셔널이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은 기

회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하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였는데, NAfME 이사회는 형평성과 접근성의 한계, 즉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전국 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비싼 참가비와 여행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만 참여하게 되는 현상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협회의 사명과 충돌한다고 결론을 내리어, 소수의 엘리트 학생을 위한 고비용 행사보다는, 더 많은 주(State) 단위의 일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원을 재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꽃과 같던 올내셔널 페스티벌을 중단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디션을 위해 인내하며 보낼 시간과 열정은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도 값진 그 자체의 결실일 것입니다. 이제 올스테이트라는 소중한 거점을 발판 삼아, 우리 아이들이 악보 너머의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인생이라는 더 큰 무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성장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Min 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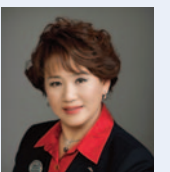
www.anytimeofficehours.com 코디네이터

시험 대비: ISEE, SSAT, SAT, ACT 맞춤형 전략 지도
STEM 특화: 과학경진대회 및 리서치 프로젝트 멘토링
인문 교양: 영어 글쓰기 대회 준비 및 논리적 에세이 지도
진학 준비: 대입 에세이 및 차별화된 학업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애나 정의 부동산 이야기 첫 집 구매, 설렘보다 준비하는것이 우선이다

애나 정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대부분 사람들이 첫 집을 구입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안정된 보금 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재정적으로 가장 큰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금리와 주택 가격 변동이 있는 시장에서는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재정 계획과 냉정한 판단이 더욱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비 구매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이 승인해 주는 최대 대출 금액 Pre-approval amount가 곧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약 45% 수준까지 주택 관련 비용을 기준으로 대출 승인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모기지 상환금 뿐 아니라 재산세, 주택 보험,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경우에 따라 HOA 비용까지 함께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주거비가 소득의 약 30~3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최대 승인 금액에 맞춰 집을 구매하면 흔히 말하는 '하우스 푸어' 상황에 빠질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을 구매한 뒤 통장 잔고가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언제든지 수리가 필요할 수 있고, 경제 상황이 나소독 변화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한 재정 관리 방법으로 권장합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다운페이먼트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외의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클로징 비용, 이사비용, 가구와 가전 구입, 초기 수리 비용 등에 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숨은 비용을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집을 구입한 후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 전에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집을 구입하면 현재 렌트보다 매달 2,500달러 정도 더 지출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금액을 실제로 6개월 정도 따로 저축해 보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생활에 큰 무리가 없



면 준비가 된 것이고, 부담이 크다면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숫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멋진 인테리어나 예쁜 주방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이기도 합니다. 향후 재판매 가치, 지역 발전 가능성, 학교, 위치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 많은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 에이전트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가격대와 지역을 분석해 주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전문적인 조언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집은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쌓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매는 오히려 장기간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에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대출 가능 금액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생활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첫 집 구매의 진정한 성공은 가장 비싼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의 생활, 보스톤코리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구독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뉴스레터 구독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매주 2회, 최신 뉴스와 주요 소식이 담긴 뉴스레터 및 신문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데스크탑(PC)에서 신청할 때

1. 보스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뉴스레터 구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신청할 때

1. 모바일 브라우저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2.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스크롤합니다.
3. 보스톤코리아 로고 아래 메뉴 중 <뉴스레터 구독> 배너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4.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약 신청 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스팸 메일함**을 확인하시거나
bostonkorea.com 도메인을 안전한 발신자로 등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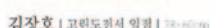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초대

백두동인전

Baekwoo Alumni Art Exhibition: Calligraphy and Beyond



최석찬 | 아리랑 | 27×40cm

이승우 | 무불행뿔 | 45x35cm

이영숙 | 호수 | 35×37cm

2026. 5. 25. MON - 29. FRI

St. Paul's Episcopal Church :

15 St. Paul Street, Brookline, MA 02446

2026. 5. 30. SAT

뉴잉글랜드 한국학교(Korean School of New England) :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